



2023

제8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제8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프로그램

### 입재식

사회 : 홍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사랑)

9:00~9:30	•개회사	
	•삼귀의, 뜻으로 풀 반야심경	
	•격려사	혜수 스님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9:30~9:40	휴식	

### 세션1

좌장 : 김재영 교수(서강대학교)

9:40~10:25	•심리학의 역사적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진복선 박사 (한마음과학원)
10:25~11:10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앗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이광숙 박사(한마음과학원) 문진건 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11:10~11:20	휴식	
11:20~12:05	•불교에서의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 함의성: 인순(印順)대사와 증엄(證嚴)대사의 철학	치엔테 린 교수 (타이완, 츠지대학)
12:05~13:05	점심	

### 세션 2

좌장 : 이창수 교수(경희대학교)

13:05~14:50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	이상호 박사 (서강대학교)
14:50~15:35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황진 박사 (한마음과학원)
15:35~15:50	휴식	
15:50~16:35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의학팀 (한마음과학원)

### 종합토론

좌장 : 이화행 교수 (동명대학교)

16:35~17:35		
-------------	--	--

### 회향식

사회 : 홍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사랑)

17:35~17:50	•회향 말씀 •사후서원	혜솔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	-----------------	--------------------------

#### ※포스터 발표(3층 연화교)

- 교육학팀
- 법문분류팀



## 격려사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뉴노멀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라는 주제로 지구촌의 공생, 화합,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원 멤버들과 독일지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 신도님들의 논문을 통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는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큰 학술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올해 학술대회를 준비한 과학원 팀원들의 열정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과학원이나 대행선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서 큰스님 가르침이 모든 학문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비교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논문을 정성을 다

해 준비한 네 분 박사님과 의학팀, 치엔테 린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 관법을 우주와 하나 된 마음으로 확장하여 과학으로 증명하고 “한마음심리학”이라는 영역으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확립하고자 애써주신 진복선 박사님,

“주인공 관법”에서 현재의식을 중생심으로, 주인공에 무심으로 놓는 의식을 잠재의식으로 규정하고, “정신통합”에서 앗사지올리의 I와 Self로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행선사의 “마음공부”의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이광숙 박사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초전도체에 “마음공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강황진 박사님,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이상호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학팀의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는

만성질병에 끄달리시면서도 “주인공”을 믿고 맡기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다섯 편의 논문 모두 큰스님의 가르침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 주신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인순대사와 증엄대사를 소개해 주셔서 대만 불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치엔테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큰스님께서 ‘여러분이 마음공부다, 한마음과학이다 하니까 멀리 있는 줄로 아는 데 아주 가깝게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생활이 도(道)고 생활이 진리고 생활이 바로 과학이다. 과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뜻을 바로 알아야 아주 작은 요만한 에너지가 이 세상 지구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스님 말씀대로 과학원 소임을 살고 심부름을 하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이 세상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에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항상 오늘처럼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감사한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7년 10월 14일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합장





## 목 차

---

### 13 심리학 역사의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

The Consideration of Human and Mi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sychological History : Exploring the possibility toward ‘One-Mind Psychology’

진 복 선 (한마음과학원)

---

### 67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앗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Assagioli’s Disidentification and Daehaeng’s Juingong Contemplation Method

이광숙 (한마음과학원) ·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 101 불교에서의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 함의성: 인순(印順)대사와 증엄(證嚴)대사의 철학

---

The Mutual Entailment of Humanism and Altruism in Buddhism: the Philosophies of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치엔테 린(Kent Lin) (대만 자제(慈濟)대학교 종교와 인문학 연구소 소장)

133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Juingong and Hanmaum

이 상 호 (서강대학교 박사)

---

165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 Study on New Superconductor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Hanmaum Science

강 황 진 (한마음과학원)

183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Registered in  
One of the Korean Seon Centers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장) · 김미지(한마음한의원장) · 김종훈(김종훈치과원장)

김주현(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장미란(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연구원)



---

215 한마음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행선사 법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Hanmaum  
Pedagogy: Based on the Analysis of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alks

김민선 · 김영래 · 방정애 · 안정현 · 최명희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

---


219 핵심어-중심 접근에 의한 대행선사 용어집 개발

---

Development of Glossary on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eachings

김대성 · 김미지 · 김상윤 · 김주현 · 김학도 · 박종숙 · 박지영  
안인옥 · 이문성 · 진복선 · 최상욱 · 최한겸 ·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법문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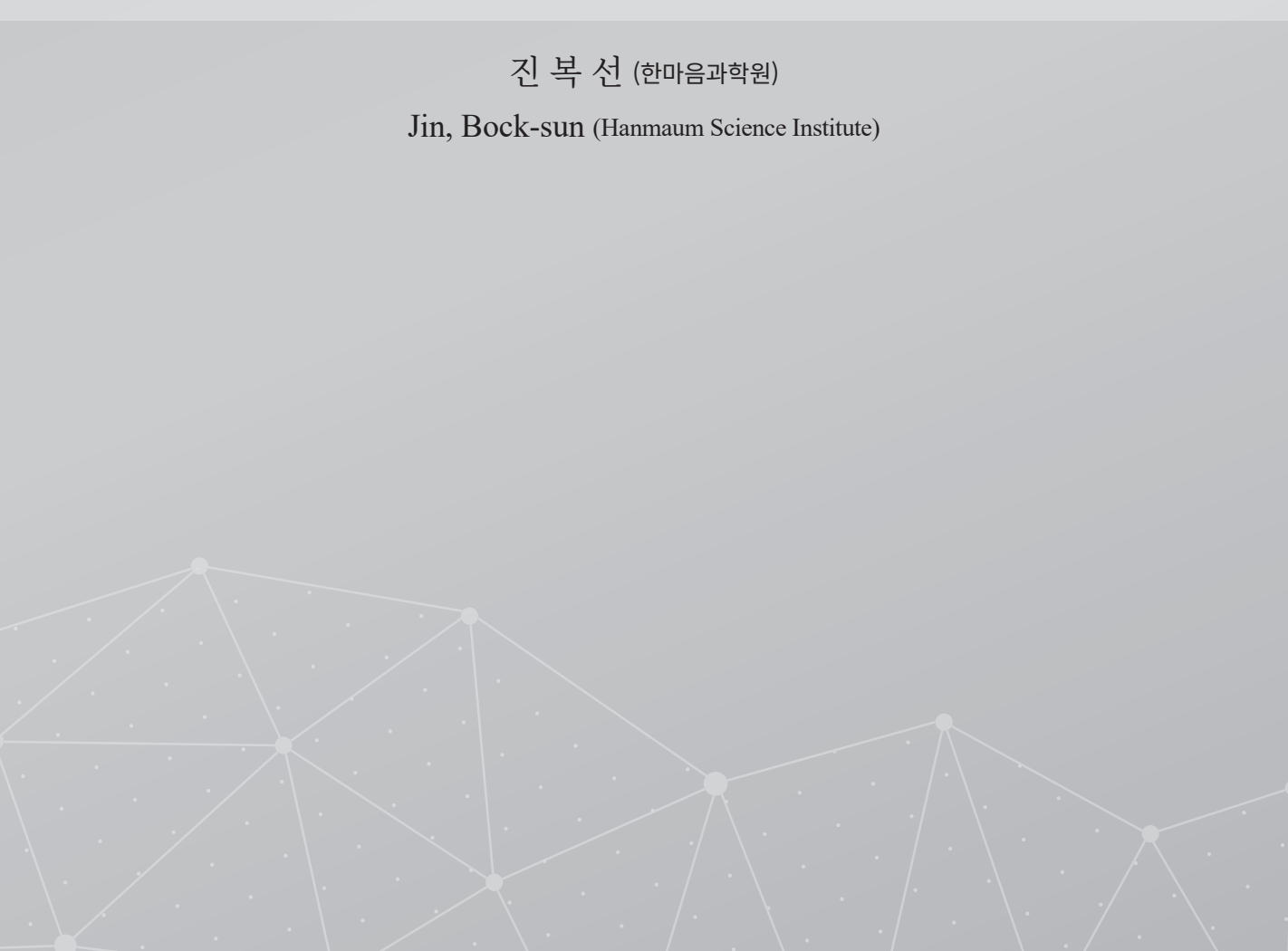


심리학 역사의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The Consideration of Human and Mi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sychological History :  
Exploring the possibility toward ‘One-Mind Psychology’

진 복 선 (한마음과학원)

Jin, Bock-sun (Hanmaum Science Institute)



본 연구는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인간과 마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행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관법을 중심으로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서구 심리학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구성주의심리학, 기능주의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인본주의심리학의 순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행선사의 한마음법과 주인공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구 심리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대행선사의 마음과 한마음, 주인공과 주인공관법을 살펴볼 때, 관통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

마음에 관한 한, 대행선사는 정통한 전문가이자 탁월한 심리학자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한마음과 주인공관법에서 심리학적 논리를 궁구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찾는다면 ‘한마음 심리학(One-mind Psychology)’의 심리학적 논리 전개와 해석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첫째, 심리학의 주도권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과학’에서 인간 마음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등 인공물에게까지 확장되는 마음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대행선사를 한국의 마틴 루터에 비유한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자는 한국의 정신문화적 종교개혁은 원효대사에서 시작하여 대행선사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본다. 원효대사는 당시 신라의 귀족불교를 민중불교로 범위를 확대하여 만인평등을 몸소 실행한 실천가였다. 그리고 대행선사는 인간의 마음을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공으로 확대하고 통합한 한마음을 통하여 만인평등사상

---

인 평등공법을 완성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원효대사의 일심(一心)과 대행선사의 한마음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대행선사의 한마음법과 사상을 심리학적 논리로 전개하여 정리하고 실제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실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살펴본 사상과 방법의 접근으로 ‘한마음심리학’의 필요성과 그 기초적 토대를 마련한다면 본 연구의 의미 또한 없지 않다 할 것이다. ‘한마음심리학’을 위한 마음과학자들의 한마음을 기대해 본다.

• 주제어: 심리학, 한마음심리학, 대행선사, 과학, 마음,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관법

---

---

● ABSTRACT ●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One-Mind Psycholo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s and the mind through historical scrutiny of psychology, focusing on the “One-Mind” and “Juingong Gwan Practice” of Seon Master Daehaeng. Initiall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Structuralism, Functionalism, Psychoanalysis, Analytical Psychology, Behaviorism, Cognitive Psychology, and Humanistic Psychology were examined following the historical progression of Western psychology. This was followed by a detailed look into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of One-Mind and Juingong Gwan

---

---

Practice. A consistent theme was identified when comparing these with the historical context of Western psychology.

Master Daehaeng is considered a genuine expert and an outstanding psychologist regarding the mind. In this context, if one seeks the psychological logic from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One-Mind’ and ‘Juingong Gwan Practice’, the logical development and interpretation of ‘One-Mind Psychology’ can be deemed feasible.

By comparing the historical reviews of psychology to Master Daehaeng’s dharma of One-Mind, this research identified several key insights. Modern psychology, post-Enlightenment, which once emphasized human rationality within the realm of ‘science’, is now shifting and expanding its focus to minds embedded in artificial entities such as compute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even the Internet of Things (IoT).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izing science and the mind, and the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of these domains, ‘One-Mind Psychology’ is not only possible but can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the futur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psychology.

To summarize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Firstly, the dominion of psychology is transitioning from emphasizing

---



---

human rationality within ‘science’ to a broader scope, which includes minds in artificial entities. Secondly, while some liken Seon Master Daehaeng to Korea’s Martin Luther,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spiritual-cultural religious reform in Korea began with Great Master Wonhyo and was completed by Master Daehaeng. Great Master Wonhyo expanded the Buddhism of the Shilla aristocracy to the masses, embody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all. Seon Master Daehaeng further expanded this concept by considering the human mind as the master of the universe, earth, and all things, thereby completing the egalitarian principle through the One-Mind: the dharma of Even and Equal Emptiness(平等空法). In this sense, the One-Mind philosophy of Master Daehaeng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Great Master Wonhyo’s One-Mind(一心).

If we organize and apply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of One-Mind and philosophy using psychological logic, it could provide substantial psychological assistance to many individuals. If this study establishes the foundation and necessity for ‘One-Mind Psychology’, its contributions would be significant. We look forward to a unified effort from mind-scientists for the advancement of ‘One-Mind Psychology’.

• Keywords: Psychology, One-Mind Psychology, Seon Master Daehaeng, Science, Mind, One-Mind, Juingong, Juingong Gwan Practice.

# I. 들어가는 말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문득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곤 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적(全人的) 인간을 꿈꾼다. 본 연구에서는 몸보다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의 실체를 탐구하고 규명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적인 통찰을 얻고자한다. 인간 마음에 대한 탐구는 철학(哲學, Philosophy)에서 시작하여 합리적, 분석적, 과학적 접근의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으로 이어진다. 인간과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19세기부터 ‘실체와 진리는 과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이성, 즉 과학을 통하여 모든 것이 탐구되고 설명되어 질 수 있다는 신념이 서구 사회를 지배해 왔다.

본고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서구의 심리학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대행선사의 한마음법과 주인공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절에서 4개항으로 분류한, 1. 구성주의(Structualism)심리학과 기능주의(Functionalism)심리학, 2. 정

신분석학(Psychoanalysis)과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 3. 행동주의(Behaviorism)와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4. 인본주의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을 살펴보고, III절에서는 대행선사의 한마음(One-mind)과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대행선사는 마음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탁월한 심리학자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의 역사적 관점과 선사의 마음과 한마음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대행선사의 한마음법을 중심으로 하는 ‘한마음심리학(One-mind Psychology)’으로의 심리학적 논리와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명의 지향 속에서 정신적 혁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정신문화적 개혁을 대행선사의 한마음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대행선사의 마음과 한마음,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관법은 심리학의 역사적 맥락을 관통하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sup>1)</sup> 하는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혁명적 심리학적 변화는 대행선사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1) 이정모,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 체화적 접근”, 2009,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제2회 심포지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참조.

이에 더해 서구의 만인평등사상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종교개혁은 원효대사에서 시작하여 대행선사에서 완성되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법’은 원효대사의 ‘일심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대행선사는 심리학의 주도권을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과학’에서 한마음으로 확장된 ‘마음’으로 전환시켰다. 마음을 유능한 주재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인간성에서 떨어진 신성(神性)으로 지칭될 수 있는 모든 존재와의 합일로 통하는 내재된 직접적인 통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2)</sup>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한마음심리학(One-mind Psychology)’의 심리학적 논리와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주제가 심리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거대 담론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연구에서는 큰 흐름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에 만족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탐색하여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마음과학원의 학술세미나 “한마음심리학(One-mind Psychology) 으로의 접근”(2017. 06. 18.), “행동주의(Behaviorism)

---

2) 한스육, “대행선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2015, 제1회 한마음학술제, 「대행사상 학술세미나 논문집」, 185.

와 한마음심리학”(2018. 09. 02.), “인지이론(Cognitive Theory)과 한  
마음심리학”(2019. 02. 17.)의 발표 자료와 2020년 <제5회 한마음과학  
원 학술대회> 교육학팀 “한마음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과  
학원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 II. 심리학의 탄생과 역사

### 1. 철학(Philosophy)에서 심리학(Psychology)으로

고대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균형, 신  
과 인간의 합일 등이 최대 화두였다. 인간의 감성을 노래하면 그것은 곧  
신화, 신곡이 되었고 건축물을 지으면 신전이 되었으며, 인간성(人間  
性)에서 신성(神性)을 보고 또 찾으려 하였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로  
마 신화에서 보듯이 신은 그야말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  
랑하고 질투하는 등, 인간과 같이 그려지고 묘사되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었으며 인간성에 신성(神性)을 더하였다. 오히려 인간의 자아로  
써 받아들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전개 등은 신(신화)이라는 이름으  
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자기 합리화를 해온 사회로서 인간중심주의 사  
회였다.

그러나 뒤이어오는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모든 주제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신이 대신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중심에는 신(神)이 있었으며, 절대적인 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오직 교회(카톨릭)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인간이 배제된 신 중심(神中心) 사회에서, 인간(性) 부재에 대한 반발이 팽배해지면서 지식인(신을 찬양해야 하는 문학)과 예술가(신을 향한 많은 조각과 교회 첨탑 등으로 상징되는 건축양식)들을 중심으로 재생, 부활(인간성 회복)을 상징하는 문예부흥의 정신운동인 르네상스(Renaissance 12-14세기의 인간 정신문화의 회복운동)가 발생하면서 사회변혁이 시작되었다.

르네상스와 함께 일어난 또 하나의 서구사회의 커다란 변혁의 하나가 1517년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다. 민중은 교회(카톨릭)를 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교, 즉 기독교 교회<sup>3)</sup>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교(기독교)운동이 그것이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대중의 문해(문자)교육은 계몽주의의 정신문화적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서구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의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이 탐구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유의 판

---

3) 거대한 카톨릭 교회 중심이 아닌 성경과 예배를 볼 수 있는 작은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 교회.

단을 내려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를 받게 된다.<sup>4)</sup> 이러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 근대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 개별, 인간의)<sup>5)</sup>로 이어지고, 대변혁을 가져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인간성 회복과 과학의 발달이라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도 함께 이루어 왔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실체 그리고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탐구되고 설명되고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과학과 과학자의 시대를 불러왔다.

진리는 절대 불변의 선(善)인 이데아(Idea)를 중심으로 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관념론(觀念論)에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실재론(實在論)이 대두되면서 서양의 철학과 학문의 중심이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과학 중심의 근대사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 역시 추상적 가설 중심의 개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방법이 도입되면서 인간 심리의 연구는 강의실이 아닌 실험실로 이어진다.

---

4) 한스육, “대행선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2015, 제1회 한마음학술제, 「대행사상 학술세미나 논문집」, 181.

5) 한 개인으로서의 인권과 자유 등, 하늘이 부여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주의나 사상을 말하며, 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계급이 형성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이기적인(Selfish)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혼동되어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없지 않으며 자기중심적 이기주의(selfishness)와 개인주의는 구별되어야 하며 현대 시민사회를 이끌어온 중요한 개념이다.

## 2.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

### 1) 구성주의(Structualism)와 기능주의(Functionalism)<sup>6)</sup>

구성주의(구조주의)는 인간의 마음, 정신, 특히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던 최초의 심리학파로, 독일의 철학자 겸 심리학자인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Wilhelm Maximilian Wundt, 1832-1920)의 제자 티치너(Edward B. Titchener, 1867-1927)에 의해 창시되었다.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기본 요소인 분자를 연구하는 것처럼 이들은 마음, 감정, 감각, 심상과 같은 의식적인 경험의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트는 1879년 모교인 라이프치히(Leipzig)대학에 심리실험실을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 정신, 영혼의 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 노력은 내성법(Introspection :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 자신의 내부 성찰법)<sup>7)</sup>의 사용으로 심리학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내부로 향한 관

---

6) 남기덕 외 5인, 「리더와 상담자를 위한 심리학」, 2010, 박영사, 23-27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7) ‘내성법 또는 내관법이라고도 하며 내성, 자기성찰(Introspection)의 마음관찰법’ - 마음과 정신, 즉 심리상태를 내면으로 관찰하는 행동으로 실험실의 엄격한 통제 하의 실험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어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방법이다. 감각, 느낌 등의 내면의 마음, 감정 등을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내용을 분석하는 주관적 분석을 말한다.



찰법을 처음 사용하였다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을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서 나타난 기능주의심리학(Functional Psychology or Functionalism)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의 구성 요소보다는 의식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흐름의 기능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인간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현상의 기능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이다. 서구인으로는 처음으로 의식과 의식의 흐름을 탐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제임스(James)<sup>8)</sup>의 주장은 특히, 마음(의식)의 흐름에서 분별되지 않은 순간에 관심을 가졌다.<sup>9)</sup>

감정이 고조되는 매순간, 무언가 기억해 내려 애쓸 때마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단계마다 서로를 보완하며, 결국 하나인 텅 빈과 충만함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현상의 본질이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sup>10)</sup>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에서 음악의 의미나 형태, 멜로디의 아름다움

---

8)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미국 심리학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9) John Welwood, 「Toward a Psychology of Awakening」, 김명권·주혜명 역, 「깨달음의 심리학」, 2008, 학지사, 88.

10) 존 윌우드, 「깨달음의 심리학」, 85에서 재인용.

은 음의 간격에서 생겨난다고 설명하면서 음악은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형상과 공(空)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비유라 설명한다. 형상은 공이다. 실제로 멜로디는 음들 간격의 패턴이다. 사람들은 멜로디가 음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연속이기도 하다. 음은 단지 공간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한다. 공은 형상이다. 간격의 패턴은 명확하고 독특한 멜로디의 전개를 만들어 낸다. 음과 음의 간격 모두의 배경이 되는 것은 멜로디를 포함하고 있으며 멜로디가 드러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더 커다란 고요함이다.<sup>11)</sup>

제임스(James)의 기능주의는 뒤이어 출현하는 행동주의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의식의 흐름 사이의 기능이 존재한다면, 차원이 다를 뿐이지 무생물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계도 서로의 의식의 흐름(기능)이 충돌하면 아파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능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의 영향을 받아 의식의 흐름에서 기능을 중시하였다.

구성주의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관찰의 대상을 관찰자 안으로 향하는 내성법(또는 內觀法)을 출현시켰으며 객관적 분석보다는 인간 내면의 주관적 분석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능주의는 ‘형상’과 ‘공’으로 설명

---

11) 존 월우드, 앞의 책, 90-91.

되는 의식의 흐름을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의식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인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인간은 분석과 관찰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의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에 입각한 기능을 중시하는 객관적 관찰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성(理性)을 보편적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이 탐구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지능의 도움으로 고유의 판단을 내리라는 명확한 요구를 받게 된다.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되지 않은 현상들의 존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강한 경향이 성립되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실 비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 시기는 과학이 거의 주재자 역할을 하며, 개인과 종교보다 우선시 되는 오만한 과학과 과학자의 시대였다. 인간은 과학적 대상일 뿐이었다. 인간성보다는 과학(이성)으로 모든 실체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만능, 과학지상주의가 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오늘에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다.

## 2)정신분석학(Psychoanalysis)과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

심리학에서의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인간의 정신 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며 무의식이 성격구조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 무의식은 생활에서 의식하고 싶지

---

12) 한스욕, 앞의 글, 183.

않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 혹은 용납하기 어려운 욕구 등이 억압되어 있는 저장소이다.<sup>13)</sup>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치료의 요체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신체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된 불합리한 억압을 찾아내고 이를 내담자가 자각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의 빛에 의해 밝혀지면서 의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자아의 영토는 확장되고, 억압에 사용되었던 에너지도 자아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sup>14)</sup>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가진 이론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비과학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대 심리학에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인간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유럽에서, 기독교 교리(인간의 원죄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 존재나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적 틀을 형성해 왔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욕구를 해소하고 조절해야하는 대상으로 보았으며 모든 인간은 신경증 또는 정신병적인 소인을 갖고 있으며 경증

---

13) 이수식, 장미옥, 진복선 편역, 「생활속의 적응」, 1994, 양서원, 25.

14) 김영래, “무의식의 담론과 마음교육-대행선사와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회 제53권, 88.

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신경증적, 정신병적 증상의 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제자, 융은 프로이드의 이러한 학문적 견해를 달리하면서 결별하게 된다.

칼 융(Carl G. Jung, 1875-1961)은 자신의 이론을 분석심리학 (Analytical Psychology)이라 하였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 (personal unconscious)과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으로 나누고, 이 집단무의식이 성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융의 이론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융은 개별화(individuation)를 통한 인간의 자아(ego, self) 통합의 논리를 보여주며 완전한 자기(Self)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합된 자아(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뒤에 나타나는 인본주의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다.<sup>15)</sup>

### 3) 행동주의(Behaviorism)와 인지론(Cognitive Theory)

행동주의(行動主義, Behaviorism)심리학은 기능주의심리학을 배경으로 미국에서 탄생한 경험주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반을 둔다.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 의식은 행동주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

15)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 “한마음 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0, <제5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자료집>, 29 참조.

마음은 거의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와 물질적 성과가 관심과 초점의 대상이며, 생산과 교환가치를 우선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현대 사회의 기본개념과 운용의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이론이다.

인간은 주어진 자극에 의해 반응(자극-반응-연합)하는 수동적 존재이며,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반응이 누적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본다. 대표 학자로는 스키너(B. F. Skinner), 손다이크(E. Thorndike), 왓슨(J. B. Watson : 1878 - 1958) 등이 있다. 자극과 반응에 의하여 인간 행동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조건화이론(Conditioning Theory)에 근거를 둔 것으로 환경을 적절히 조성해 줌으로써 인간의 행동은 수정, 조작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sup>16)</sup> 대표적인 환경주의적 입장으로 현 사회와 학교 시스템은 모두 이 행동주의에 입각하여 설계되고 있으며, 관료주의 등 다른 사회의 조직과 체계에도 모두 이 작동원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키너(B. F. Skinner)에 의하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사실상 모든 행동은

---

16) 대표학자인 왓슨(J. B. Watson)은 개인의 환경이 적절하게 조절된다면 어떤 종류의 행동도 학습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건강한 유아와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잘 짜여지고 특별한 상황적 공간만 주어진다면 무작위로 한 명만 선택하여 훈련시킴으로써 그의 재능이나 취미, 경향, 능력 그리고 그 조상의 종족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그리고 물론 거지나 도둑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단적인 환경론자의 입장을 취한다.

환경적 요소로부터 학습된 결과라고 설명한다.<sup>17)</sup>

예를 들어, 물질적 보상(높은 임금, 투자) 혹은 정신적 보상(인정, 칭찬)등에 의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환경조성을 더 강조한다.<sup>18)</sup>

더 이상의 강화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원하는 행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자극(stimulus)-반응(response)의 연합(association)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개인 생각의 인지구조와 인지과정에 집중하며, 전체적 통찰에 의한 인지과정에 방점을 두는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이 탄생하게 된다. 형태주의심리학 또는 게슈탈트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라고도 하며,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은 인간의 행동을 단순한 요소로 작게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행동주의에 반대한다.<sup>19)</sup>

---

17) Watson, J. B.(1924). Behaviorism. New York : Norton. 진복선 외 편역, 「생활속의 적응」, 1994, 양서원, 31에서 재인용.

18) Pavlov의 개의 실험과 같이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타액을 분비하는 고전적 조건화가 있는가 하면, Skinner에 의해 고안된 강화물에 의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조작적 조건화가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임금, 높은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경품이나 쿠폰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유인 강화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학교장면일 경우 교실청소를 면제해 줌으로써 행동을 강화(reinforcement)하게 하는 것과 함께 월말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적인 시험일정으로 학습을 유도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학교, 사회와 같은 현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이 행동주의 원리에 의해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 임규혁,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1996, 학지사, 124.

예를 들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의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와 전체적 통찰(insight)을 강조한다. 여러 개의 ‘개별 음’들이 모이면 개별 음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멜로디’가 나오는 것처럼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말로 형태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sup>20)</sup>

인지주의 이론은 분트(W. Wundt), 제임스(W. James)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며, 정보의 형태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지각(perception), ‘인지처리과정(cognitive process)’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마음을 정보를 선택하고, 조작하고,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등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본다. 그래서 행동의 원인을 마음 작용,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으로 보는 것이다.<sup>21)</sup>

인간의 내적 인지과정과 인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sup>22)</sup> 인지주의자들은 인간과 컴퓨터를 유사한 정보처리 원리를 지닌 정보처리이론(information-process theory)의 과정으로 보고 입력과 출력 등의 인지과정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마음의 작동 시스템과 마음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이후 신경망이론(neural network theory)과 같이, 인간

---

20) 임규혁, 같은 책, 148.

21)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1999, 학지사, 60.

22) 거듭된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자신의 자아효능감(self efficacy: 과제와 수행을 자신이 통제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자아상)의 인지구조로 형성케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이론.



의 기억이 신경망의 노드(node: 마디) 사이의 연결로 저장된다고 하는 20세기 후반 신경과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인지심리학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현상 즉, 주의, 기억, 언어, 사고와 같은 과정들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신경계의 해부학과 생리학적 기능을 연구하는 신경과학(neuroscience)의 발전은 인지심리학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였다.<sup>23)</sup>

최근의 인지심리학은 뇌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마음은 한 사람 뇌 속에만 갇혀 있는 그 무엇, 한 개인의 그 무엇이 아니라 환경과 통합하여 여러 다른 나라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인공물들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진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공유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활동으로서의 ‘확장된 마음’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sup>24)</sup> 인지과정과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sup>25)</sup>로, 이러한 개념의 틀은

---

23) 이정모, 위의 책, 32, 43.

24) 이정모,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 체화적 접근”, 2009,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제2회 심포지움 ‘-지식융합2.0/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30.

25) Varela, F. J., Thompson, E.(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석봉래 옮김, 「몸의 인지과학」, 2013, 김영사, 9. Varela F.(1946-2001) 이전, 미국의 언어철학자 마크 존슨(Mark Johnson)이 「The Body in the Mind(마음속의 몸)」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이론적 틀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향이 증대하리라 본다.<sup>26)</sup> 많이 발전된 면도 없지는 않지만 분석적이고 과학적 접근에 대한 제한점과 한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의 인간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대세를 이루어온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성장, 자아실현은 타고나는 본능적 욕구라는 인본주의심리학의 등장이 인간에 대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을 보여주며 인간성과 신성의 통합이론을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인간’(A. Maslow),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C. Rogers), ‘성숙한 인간’(G. Allport), ‘여기 그리고 지금의 인간’(F. Pearls) 등으로 표현되는 인본주의심리학이 등장하였다.

#### 4)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은 인간은 내재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주장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하려는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심리이론과 인간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다. 대표 학자는 매슬로우(Abraham Maslow)이다.<sup>27)</sup> 매슬로우는 자기초월을 통한 자기실현

---

(1987)에서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속에 있으며, 몸·마음은 세계의 일부이다.”라고 가장 먼저 말하였다.

26) 이정모, 앞의 글, 23.

27) 행동주의심리학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비하여 제3세력심리학(The

(self-actualisation)을 주장하면서 “프로이드는 인간 심리의 병든 반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건강한 반쪽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인본주의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이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으로 발전하면서 신비주의적 동양사고와 불교적 개념이 도입되는 등 인간의 사고와 정신적 경지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되었다. 초기에는 초월심리학자로 분류되었지만 자신의 심리학을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sup>29)</sup>이라고 주장하는 켄 윌버(Ken Wilber)의 공(空)<sup>30)</sup>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간 이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한다.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에서 진화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활동 중에 있는 영(Spirit-in-action)’ 또는 ‘창조 중에 있는 신(God-in-the

---

Third force Psychology), 그리고 성장의 욕구를 강조하면서 성장심리학(The Growth Psychology)이라고도 한다.

28) Duane Schultz ,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1977, 이상우, 정종진 역, 「인간성격의 이해」, 중앙적성출판사, 1984, 104-106.

29)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은 1990년 후반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론으로 통합적 패러다임의 주역 윌버(Wilber)가 주창한 심리학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현대적 의미에서의 최초의 통합적 모델인 정신통합(psychosynthesis)을 창안한 아사지올리(Assagioli) 등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30)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 “‘한마음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융·매슬로우·윌버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2020, (재)한마음선원.

making)’이라는 개념이다. 그는 영(Spirit)의 또 다른 명칭으로 ‘창조성’을 언급하면서 ‘공(空)’이라는 불교적 용어도 병용한다. ‘창조성’ 혹은 영(Spirit)을 기존의 존재에서 숭배하는 신(神)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다. 월버는 ‘창조성’이 ‘온우주’를 만든다고 본 것이다.<sup>31)</sup>

켄 월버의 통합사상의 핵심은 존재의 4분면(All-Quadrants All-Levels: AQAL)과 홀라키(Holarchy)적 창발(emerge)<sup>32)</sup>로 요약할 수 있겠다. 월버는 이 ‘창조성’ 혹은 ‘영(Spirit)’을 기존의 종교에서 숭배하는 의인화된 신(神)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다. 어떤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는 ‘공(空)’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sup>33)</sup>

전통 역학이나 과학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관념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제한된 과학적인 세계관과 테크놀로지화를 통한 물질의 강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전체적인 근본 경험에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sup>34)</sup>

이제까지 심리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전통 과학과 마찬가지로

---

31) 켄 월버, 「모든 것의 역사」, 2015, 김영사, 69-70.

32) 켄 월버의 ‘4분면’과 ‘홀라키적 창발’에 대하여서는 2020년 교육학팀, “한마음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켄 월버 편에 잘 요약되어 있다.

33)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 위의 논문, 52.

34) 한스욕, 앞의 글, 183.

마음, 즉 심리에 대한 연구가 합리적, 경험적 과학으로부터 논리적 사변적 분석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보인다. 실체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대행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관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Ⅲ. 대행선사(Seon Master Daehaeng)의 ‘마음’

#### 1. 마음과 한마음

대행선사(大行禪師, 1927-2012)의 마음 실체와 작용에 대한 논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대행선사는 인간의 마음으로 한정되었던 마음의 범위를 우주, 천지, 그리고 모든 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천지의 근본이 마음이요, 태양의 근본이 마음이요 인간이 일체 만법을 운영하고 행하는 것도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야말로 선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다.(한마음요전, 369)<sup>35)</sup>

---

35)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1992, 369.

한마음은 전체이다. 허공같이 원대하고 광활하다.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중생의 마음인 것이다.(한마음요전, 312)

대행선사는 마음을 궁극의 근본에 두고, 마음-행동의 프로세스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설명하는데 선사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 내기 이전(생명)’, ‘마음 내는 것(마음)’, ‘내 몸(육신)’의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공존(共存)의 실체를 (한마음)주인공(主人公)이라 한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실체와 현상은 모두가 이 주인공의 나뉠이라고 하였으며. 현실세계 모든 것은 이러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철학자이며 유식불교에 정통한 한자경은 “불교가 그 근원적 하나를 ‘일심(一心)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신(神)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氣)도 아니고, 바로 마음, 한마음이라니! 그것은 곧 정신과 물질, 자아와 세계의 하나 됨을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sup>36)</sup>라고 하며 대행선사의 한마음 사상에 동의와 경의를 표하고 있다.

대행선사는 마음이 근본(뿌리)이며 생물, 무생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마음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보이는 현상계

---

36) 한자경, 「유식무경(唯識無境)」, 2000, 예문서원, 6.

는 마음과 그 마음 운용의 그림자(흔적)에 불과하다하였다. 그 마음과 마음은 하나의 큰마음인 ‘한마음’이다. 선사는 마음 에너지의 작용과 운영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음은 자력·광력·전기력·통신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에 자력으로 끌어 오기도 하고 통신력으로 통하기도 하고 자재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내 근본에서 빛보다 더 빠른 종합된 에너지가 나와서 법계에 두루 통하고 있음을 알면 된다. 그냥 컴퓨터의 키보드 누르듯이 자재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한마음 요전, 376)

대행선사는 마음은 쪼개어서 알아보거나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의 생산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창조자이자 유능한 주재자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제까지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로 살펴본 바로는, ‘과학’이 마치 전지전능한 능력과 판단준거의 틀인 것 같았다. 그러나 심리학의 주도권이 선사에 와서 ‘과학’에서 ‘마음’으로 이동되었다.

우리는 마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교류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고전 문학이나 고전 음악을 통하여 소설 속 인물과 또 그 멜로디를 통하여 위안과 감동을 받는다. 찰나와도 같은 짧은 순간에 서로의 감정을 읽고

교환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위대한 현대의 문명기기도 사람들의 마음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발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 에너지가 물질의 형태로 현상계에 구현되는 것을 나툼이라 말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마음이 모인 마음의 주인공이 발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과 환경 그리고 인공물과의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sup>37)</sup>으로 공진화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뇌와 몸과 환경이 하나로 엮어진 통합체의 능동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재구성된 마음 개념의 틀을 도입한다면, 인공물이,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현실공간이나 가상공간이, ‘확장된 마음’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형성, 조성하는 기능 단위 또는 공간, 대상 및 사건으로 작용하며, 마음과 인공물이 하나의 통합적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이러한 디지털 문명도 인간의 뇌와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적용되어 현실화된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의 개발과 발전에서 인간과 기계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화된 마음, 확장된 마음은 이미 선사의 마음 논리와 설명에서 언급되어 왔다.

---

37) 이정모, 앞의 글, 24-25.

38) 이정모, 앞의 글, 29.



일부 인지심리학자들은 심리학 혁명의 시대<sup>39)</sup>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대행선사에 의해 그러한 혁명은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한마음은 마음을 매개로 모든 유생, 무생, 나아가 전 우주를 연결시키고, 또 소통할 수 있다는 통신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인간의 마음, 동물의 마음, 우주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의 마음, 즉 한마음으로 통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형태로 현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심리학의 대상이 인간에 국한하는 것인데 반하여, 인간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로 합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대한 창조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인간, 즉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심리학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도 모든 현상과 실체는 주인공의 나툼이므로 천지만물로 마음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 2. 주인공(主人空)과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

### 1) 주인공(主人空)

대행선사의 주인공(主人空)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삶의 주인공이다.’라든가, ‘모든 일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다’와 같은 주인공(主人公)

---

39) 이정모,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혁명”, 2008, 앞의 나무.

의 의미보다는 주인(主人)에게서 공(空), 현상과 활동(작용)을 더 보태었다.

대행선사의 주인공(主人空)이란 중국 선불교의 핵심 개념인 주인공(主人公)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선사는 전통적인 주인공(主人公)을 해체한 자리에 주인공(主人空)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sup>40)</sup>

왜 주인공이냐? 나의 참 주인이니까 주인공이요, 또 텅 비었기에 ‘빌공 자’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란 뜻은 내가 그것을 근거로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한마음요전, 325)

주인공은 나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다.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이요, ‘주’ 한 것은 근본 자리를 말하고 ‘공’ 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한마음요전, 319)

선사가 말하는 주인공(主人空)은 마음이 체화된 현상이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심리학의 한 분야인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이 주장하는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EM)의 모습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은 한마음 주인공과 주인공관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한다.

---

40) 이덕진, “대행 ‘주인공 主人空’에 대한 고찰”, 2018, 「한마음 연구」 Vol.1, 259.

레이더망이 위에 있고 그 기둥 밑에 컴퓨터, 천체망원경, 천체 무선통  
신기, 탐지기, 팩시밀리가 붙어 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은 채 능력만 지  
니고 있고 나머지는 돌아간다. 각각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타  
심통, 신족통을 이룸이다.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기에 우리는 천차  
만별로 되어 있는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원심력을 갖고 있  
다.(한마음요전, 377)

대행선사는 이미, 디지털 기기의 체화된 마음을 일러 주었다. 우리의  
몸을 각자의 개인 컴퓨터로 비유하였고 그 컴퓨터 사용자는 주인이 되  
어 잘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체화되어야 현상과 실체로 나  
타날 수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우주 정거장을 세운다, 미사일을 띄운다 할 때에 물질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종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새가 나는 것도 마  
음이 있기에 난다. 꽃도 마음이 있기에 피고 바람도 마음이 있기에 솔솔  
분다. 일체 만물의 근원을 알면 마음으로 상응하고 감응할 수 있다.(한마  
음요전, 378)

이정모는 “인간과 인공물, 인간의 마음과 인공물의 지능 간의 경계  
가 어느 정도 허물어진다면 마음, 지능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being)의 밑뿌리부터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 오는 것이다. 이  
러한 변혁은 [신 중심에서 → 인간 중심으로]의 17세기 [제1의 계몽시

대] 생각 틀의 변혁에 못지 않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도래를 [제2의 계몽(깨달음) 시대]의 도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라 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행선사에 의해서 인지심리학이 말하는 계몽(깨달음)시대는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인공(主人公)이 바로 마음의 체화이고 인공물 등 모든 현상과 실체가 작용하는 확장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 사람 뇌 속에만 갇혀 있는 그 무엇, 한 개인의 그 무엇이 아니라, 환경과 통합되며 여러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인공물들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진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공유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인 것이다.<sup>42)</sup>

이어서 이정모는 마음의 새로운 개념, 즉 뇌와 몸과 환경이 하나로 엮어진 통합체에서의 능동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재구성된 마음 개념의 틀을 도입된다면, 인공물이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현실공간이나 가상공간이, ‘확장된 마음’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형성, 조성하는 기능 단위 또는 공간, 대상 및 사건으로서 작용하며, 마음과 인공물이 하나의

---

41) 이정모,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 체화적 접근”, 2009,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제2회 심포지움, 30.

42) 이정모, 앞의 글, 30.

통합적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인지과학의 출발은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이 각각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지과학의 체화된 마음이론은 대행선사의 핵심 사상인 한마음 주인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up>44)</sup>

## 2)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

구성주의에서 내성법(introspection)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사의 관(觀)은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분트의 내성법은 자신의 마음 법 - 마음과 정신, 즉 심리상태를 내면으로 관찰하는 행동으로 실험실의 엄격한 통제 하의 실험실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어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방법이다. 감각, 느낌 등의 내면의 마음, 감정 등을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내용을 분석하는 주관적 분석을 말한다. 그러나 대행선사는 모든 것을 주재하는 마음을 믿고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것이 관(觀)이라 하였다. 일체를 놓고 관(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이다. 그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관이다. 마음을 통하여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것

---

43) 이정모, 위의 글, 29.

44) 윤종갑,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2023년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284-285.

이다.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해놓고, 마치 꼭두각시 놀음을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한마음요전, 531),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게 관이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보라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이다.(한마음요전, 534)

마음의 작용이란 거대한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컴퓨터에는 이제껏 지내오면서 지은 모든 것들이 자동 입력되어 있다. 지은 그대로 뭉쳐 있다 인연 따라 하나하나 나오게 된다. 수억 겁 년 동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생각에 다 녹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죄업도 본래는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컴컴한 동굴 속일지라도 어느 때 한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였다.(한마음요전, 398)

김원명은 운명이나 팔자를 무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자유의지론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대행선사는 그 팔자나 운명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인공’이라 말한다.<sup>45)</sup>

이러한 관법을 선사는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이라 하였고 이를 통

---

45) 김원명, “개인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제1회 한마음학술제, 「대행사상 학술세미나 논문집」, 267.

하여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데 자유인의 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준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기초공사 과정을 거쳐서 쓰임새에 맞게 생산하는 마음의 한바탕 자리가 한마음 자리이다.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에 다시 녹음을 하면 앞서의 녹음 내용은 지워지고 새 내용이 녹음된다. 이 도리를 알아 진리에 맡겨둬으로써 공 테이프를 만들어라. 오랜 세월 먼지에 뒤덮인 거울일지라도 한 번 닦아냄으로써 당장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한마음요전, 400)

이것은 주인공관법의 작동기제를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대행선사의 한마음법과 주인공관법은 이미 심리학을 뛰어 넘는 차원이라 생각한다. 심리학적 차원으로 정리하고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시 더 큰 바다인 철학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와 방면에서 한마음과학의 정체성 확립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을 넘어선 과학이 한마음 과학인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작용하면서 그 오묘한 법으로 나투어 주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구성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이은 새로운 한마음심리학의 패러

다임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마음과 정신 혁명의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으로만 접근한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체화된 인지과학에 대한 연구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전한 종합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 핵심은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배제되었던 ‘몸’을 마음의 바탕으로 되찾게 하며(embodied mind), 마음이 환경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embodied mind) 구체적 환경에 상황 지워진 인지로서(situated cognition)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에 연장,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으로써 환경과 몸, 마음이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그러한 역동적인(dynamic),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interactions) 틀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sup>46)</sup>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70-80년대, 생태주의자 브론펜부르너(U. Bronfenbrenner)의 생태이론(ecological theory)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 유기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이다.<sup>47)</sup>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여기’, ‘나로부터의 출발’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언제나 시작은 나로부터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실체이며 모든 문제는 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

46) 윤종갑, 같은 글, 291. 이정모, 같은 글, 24, 26, 31 참조.

47) 임규혁, 앞의 책, 40-41.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만인평등 사상은 선진 정신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치를 한국에서는 보다 일찍 자각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그 유래가 깊다. 이러한 만인평등사상에 대한 대행선사의 평등공법, 즉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인간 이해와 선사의 한마음법을 이해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3. 평등공법(불이법: 不二法)과 ‘한마음(One-Mind)’

‘한마음(One-Mind)’을 ‘일심(一心)’ 또는 ‘원심(圓心)’이라고도 하며 일심(一心)사상은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가 그의「대승기신론소」를 중심으로 그의 일심사상을 확립하였다. 원효는 진속일여(眞俗一如)라는 그의 학문적 이론을 대중과 함께 몸소 실행에 옮겼던 드문 실천가였다. 이는 출세간적 자리(自利)만의 불교가 아니고 다 함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이타(利他)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론면에서나 실천면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구현한 한국의 뛰어난 구도자였다.<sup>48)</sup>

일심이란 일(一)과 심(心)이 결합, 즉 일체법이 둘이 아닌 무이공성

---

48)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은정희 역, 1991, 일지사, 10-12.

(無二空性)의 일(一)과 그 성품이 스스로 신묘하게 아는 작용이라는 성 자신해(性自神解)의 심(心)의 결합이라고 한다. 마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반야의 공성과 불성의 실성을 무이(無二) 즉 불이법(不二法)에 의하여 융합된 개념으로 일심의 총체성과 일심의 근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9)</sup>

그리고 원심(圓心)은 과거, 미래, 현재의 삼세심이 곧 일심이고 일심이 삼세심이며, 이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원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원심은 일체가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을 말하는데, 대행선사는 자신이 이끌어 가는 사상이 원심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50)</sup>

이 공부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 일심이 삼세심이니라.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sup>51)</sup>

대행선사의 ‘한마음’은 원효대사의 ‘일심’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행선사를 한국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sup>52)</sup>에 비유하였는데, 한국의 종교개혁은 원효의 ‘일심’에서 시작되어 대행

49) 김용환, “一心法の 관점에서 본 大行 禪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18-19.

50) 김용환, 위의 글, 166.

51)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2, 43.

52) 김재영, 앞의 글, 207.

선사의 ‘한마음’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나 성경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서양의 종교 개혁적 개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구현하려 한 사람이 원효대사이다.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누구나 염불(불법의 삶)만 하면, 극락세계(자아실현)에 갈 수 있다’는 만인평등 사상이다.

원효사상의 정점인 화엄(華嚴)사상을 살펴보면 그는 각지를 떠돌며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전했다고 한다. 사람에게 있는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정토(淨土)를 이룰 수 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오로지 서방극락세계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생각하며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귀로 부처의 가르침을 들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원효의 활동으로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게 되었다고 전해진다.<sup>53)</sup>

서양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 마틴 루터<sup>54)</sup>라고 한다면 서양의 종교개혁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 즉 서양의 원효와 같은 인물은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년경-1327년경)이다.

정통 기독교에 따르면 창조자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따라서 그 둘 간의 직접적 교통이란 가능하지 않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는 설교에서 끊임없이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창조

---

53) 원효, 앞의 책, 409-410과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54) 루터는 ‘성경에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가 아니라 낱음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낱는 신과 낱아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sup>55)</sup> 따라서 “예수만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다.<sup>5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의 종교개혁은 에크하르트에 의해 시작되어 마틴 루터에 의해 완성되었다면, 한국의 정신문화적 종교개혁은 원효에 의해 시작되어 대행선사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전통적 계급사회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개인에 대한 절대적 천부권이라면 한국의 종교개혁(정신혁명)은 서구의 종교개혁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 정신문화 유산을 가진 한국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중요한 기본 자질을 갖춘 것으로 한국인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문화적 배경으로, 확장된 한마음과 실천하는 주인공관법의 한국인은 문화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임에는 분명하다. 선사의 다음 법문은 만인평등 사상인 평등공법에 대하여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의식들을 다스리는 그 마음 자체를 한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음은 평등한 걸 말하고, 즉 말하자면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력으로 치면 전체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한마음, 이건 평등공법

---

55) 블레크니(L.B. Blakney)편,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994, 다산글방, 300의 글을 한자경의 「동서양의 인간이해」, 2001, 서광사, 56-57에서 재인용.

56) 한자경, 앞의 책, 57.

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마음이라도 작용을 해야 하는 도리가 있으면, 작용을 해야 하는 건 법입니다.<sup>57)</sup>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平等空法)을 말하죠.<sup>58)</sup>

마지막으로 완전한 인간성 회복은 선사의 다음 법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선사는 우리 자신을 가르키는 자신(自身)을 자신(自神)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을 신(神)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개혁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인간성의 신성회복인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地)를 바탕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흙을 바탕으로 해서 일체 만물이 소생됐고, 그

---

57) 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 법회2, 1203. ‘마음 핵심, 한 점에 우주가 들썩거린다’

58) 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3, 148. ‘간절한 구도심’

일체 만물이 소생됨에 따라서 생명체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고차원적인 동물로 화(化)한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써 모두가 규합됐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소생돼서 그것을 근원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이라고도 하지만 ‘자신(自神)’이라고도 하고, ‘진여(眞如)’라고도 하며, ‘각(覺)’이라고도 합니다.<sup>59)</sup>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본다면, 아무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지구가 작동을 하고 돌아가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돌아가느냐는 애깁니다. 만약에 바람신이 아니라면, 바람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고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흙도 생명이 있고 흙신이 있고… 목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불신이 있고, 모두 신이야. 인간들도 다 각종 신이란 말입니다, 자신(自神). 그런데 다 자신인데 차원에 따라서 자신이 악신이나, 귀신이나, 선신이나, 선신도 악신도 아닌 부처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sup>60)</sup>

대행선사는 심리학의 주도권을 전지전능했던 ‘과학’에서 ‘마음’으로 환원시켰으며, 중세시대이후 그리고 행동주의심리학에서 소홀히 했던 인간성회복과 함께 인간성에 내재된 신성을 되살렸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다음에 정리해 보았다.

---

59)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1, 79.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60)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1, 206. ‘단계 없는 세 단계의 공부 방법’

## IV. 심리학의 역사적 관점과 한마음법의 심리적 접근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인간과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간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서구 심리학과 대행선사의 한마음법은 심리학의 맥락 속에서 상통하면서도 또 상이한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경험적 분석적 접근을 한 구성주의심리학의 내성법(내관법 內觀法)과 한마음법의 관법(觀法)은 마음 연구를 위하여 두 접근 모두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취했다는 점은 일치하였으나 그 내용과 방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내성법(Introspection)은 실험실의 엄격한 통제 하의 실험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어적으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탐구방법이다. 감각, 느낌 등의 내면의 마음, 감정 등을 구성요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주관적 분석을 말한다.

그러나 대행선사의 관법은 마음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으로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게 관이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보라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이다.”<sup>61)</sup>, “관한다 함은 평등한 마음으로 비취 보는 것이

---

61) 「한마음요전」, 534.

고 텅 빈 마음으로 내면을 향해 주시하는 것이다.”<sup>62)</sup>고 하여, 두 접근의 차이는 분명하다.

둘째, 기능주의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마음이나 의식의 구성 요소보다는 의식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의식의 흐름이 있으며 또 흐름의 기능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그 기능에 집중하였다. 선사 또한 흐름을 중요하게 보았다. “진리란 찰나도 멈추지 않는 흐름, 곧 흘러 통하는 것, 살아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시발점도 종점도 없다. 온다 간다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걸림 없이 흐르는 유수 같은 흐름이 있을 뿐이다.”<sup>63)</sup>

정신분석(정신역동)적 접근은 의식 되지 않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관심을 가진다. 프로이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란 (현재)의식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드러날 수 없는 의식으로 보았지만 대행선사는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sup>64)</sup>고 하는, 두 견해 모두 보이지 않은 의식의 존재를 이야기 하지만 그 개념은 반대로 설명되고 있으며 프로이드는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을 이야기 하는 반면 선사는 의식과 시공간을 확장시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뒤이어 융(Jung)의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에서 어느 정도

---

62) 「한마음요전」, 536.

63) 「한마음요전」, 355.

64) 김영래, 앞의 글, 89에서 재인용.



접점을 찾는 듯하다. 융은 동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세대를 걸친 집단무의식 속의 자아(self)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자기(Self)의 개별화(個別化, individuation)를 주장하며 통합된 자기완성으로 이어나간다.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인본주의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행선사와 가장 견해가 다른 심리학파의 이론이 행동주의심리학이다. 행동주의는 마음보다는 인간 행동의 결과에 집중하며,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외적인 자극과 그에 반응하는 객관적 결과의 기술만이 심리학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마음, 의식은 거의 배제되었다. 마음이 배제되면 자연히 그 가치의 방향은 물질로, 관찰과 측정 가능한 결과에 집중하게 된다. 오늘날의 물질 위주의 성과와 성취를 위한 인간행동의 합리화가 인간성 소외, 고립, 상실의 시대를 불러왔다고 본다. 생산과 교환가치를 우선하고 인간의 마음은 배제된 결과로 불안정한 현대 사회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되도록 마음을 찾고 물질과 마음,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넷째,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 가능한 결과 위주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심리학은 인간 ‘인지(cognition)’에 집중한다. 인지구조와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식, 기억, 마음의 인지과정을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지 과정의 단계를 연구하는 뇌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적 인지심리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로, 현대 심리학의 추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뇌과학과 신경과학적, 인지과학의 과학에 기반한 마음의 인지심리학적 접근과 마음과 세계, 나아가 우주 등 전체의 운용 체계 자체를 마음에서 찾고자 하는 논리적 사변적 접근의 자아초월심리학, 통합심리학 등으로 양분되는 것 같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두 심리학적 방향을 모두 아울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행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관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마음법과 주인공관법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과 세계와의 설명과 해석을 통하여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한마음심리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탐색은 심리학의 역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V. 나가는 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위하여 서구 심리학의 발생과 변천과정, 그리고 대행선사의 마음법과 주인공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구 심리학과 대행선사의 마음법의 고찰을 통하여 상통하는 심리학적 맥락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심리학은 인간 마음과 마음의 분석에 집중하였다면, 대행선사의 경우 마음을 우주 만물로 확장시켜 인식하였으며 마음을 모든 존재의 근본과 작동 에너지로 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대행선사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체와 현상을 설명하는 시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마음의 확장된 마음으로, 앞으로의 심리학 이론을 이끌어갈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심리학의 방향과 이론적 배경, 실제 생활에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볼 때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간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해 왔다.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경험적 분석적 접근을 한 구성주의심리학과 기능주의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행동주의심리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본주의심리학까지 살펴보았는데 특히, 행동주의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이 마음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행동주의심리학에서 마음, 정신, 의식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거

의 배제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결과와 물질적 성과를 그 중심에 두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 등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면서 인간성 소외와 상실로 이어지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대인들의 불안과 불안정을 극복하고 인간성과 마음을 되찾아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심리학의 책임과 과제라고 한다면, 그 한계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뇌과학과 인지과학 그리고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최근의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마음의 인지과정을 컴퓨터나 인공지능 그 외의 인공물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결합된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과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을 탐구하면서 심리학의 혁명 시대를 예견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체화된 마음과 확장된 마음은 대행선사의 주인공관법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개념화되고 적용되어 현상화, 실체화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관점을 통해 행동주의심리학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지심리학을 보완하고 발전, 선도하면서 한마음심리학이 심리학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론적 설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심리학이 될 것이다.

둘째, 대행선사는 심리학의 주도권을 ‘과학’에서 ‘마음’으로 환원시켰고, 인간성에서 떨어진 신성(神性)을 자신(自神)의 개념으로 회복을 시

도하면서 마음은 유능한 주재자일 뿐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한마음심리학(One-mind Psychology)’은 독자적 논리 체계를 갖추고 마음작용의 심리학적 해석이 잘 구조화 되면, 심리학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존 심리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대인의 인간성 소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심리학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행선사를 한국의 마틴 루터에 비유하였는데, 한국의 종교개혁은 원효대사에서 시작되어 대행선사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원효대사는 당시 신라의 귀족불교를 대중불교로 몸소 실행한 실천가였으며, 대행선사는 인간의 마음을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공으로 체화시키고 확장된 마음으로 한국의 종교개혁을 완성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인간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한 ‘한마음심리학’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심리학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의 도출과 함께 아래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과 과제도 함께 살필 수 있었다.

첫째,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서구 심리학과 대행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관법을 큰 틀 안에서 심리학적 맥락을 찾으려 노력하였으

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상과 방법론을 연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한마음사상과 불이법과 같은 철학적이고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개념과 내용이 아니기에 설명과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 용어와 해석, 그리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어 개발과 서술 방식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교재(교과서: Textbook)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연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학문, 학제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심리학적 교육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친근하게 접하고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연구와 실천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행선사의 한마음법과 한마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한마음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영역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선도해 나가는 첨단 심리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마음심리학’이 기존의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확장된 심리학 이론으로서 심리학적 논리 전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주인공관법을 현실 문제해결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정교함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보다 많

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실천 방법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음’과 ‘한마음’, ‘주인공’과 ‘주인공관법’을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하는 ‘한마음심리학(One-mind: Hanmaum Psychology)’의 새로운 심리학적 접근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대행선사(1993), 『한마음요전』 1992,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2001),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 1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200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1,2,3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2001),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 법회』 2 (재)한마음선원.
- 한마음선원(2015), 제1회 한마음학술제 「대행사상 학술세미나 자료집」
- 한마음선원(2020), 제5회 한마음학술제 「대행사상 학술세미나 자료집」
- 한마음선원(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삶: 마음, 과학, 종교.
- 대행선연구원(2018), 「한마음연구」 Vol. 1.
- 대행선연구원(2023),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2023년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 김영래(2017), “무의식의 담론과 마음교육 -대행선사(大行禪師)와 프로

- 이드(S. Freud)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
- 김용환(2020), “一心法の 觀點에서 본 大行 禪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종갑(2023),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주인공관법과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대행선연구원, 2023년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 이수식, 장미옥, 진복선 편역(1994), 「생활속의 적응」, 양서원.
- 이정모(2009), “심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가: 체화적 접근”,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제2회 심포지엄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_\_\_\_\_ (2008),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 앞의 나무.
- \_\_\_\_\_ (2010), “인지과학과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실제”, 한국사회과학 통권 제32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_\_\_\_\_ (1999), 「인지심리학」 3판, 학지사.
- 한자경(2001), 「동서양의 인간의 이해」, 서광사.
- 한자경(2000), 「유식무경, 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 예문서원
- B. W. Scotton · A. B. Chinen · John R. Battista(1996), 「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Psychology」, 김명권 외, 「자아초월 심리학과 정신의학」, 2008, 학지사.



- Duane Schultz(1977), 「Growth Psychology」, 이상진, 정종진 공역,  
「인간성격의 이해」, 1984, 중앙적성출판사.
- Duane Schultz(1977),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이해성 역, 「성장심리학」 1982, 이화여  
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John Welwood(2000), 「Toward a Psychology of Awakening」, 김  
명권 · 주혜영 공역, 「깨달음의 심리학」, 2008, 학지사.
- Ken Wilber(2000),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조효남 옮김,  
「모든 것의 역사」, 2015, 김영사.
- Ken Wilber(2000), 「A Theory of Everything」, 김명권, 민희준 공역  
「모든 것의 이론」, 2015, 학지사.
- Maslow, A.(1969), Theory Z.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 31-47.
- Murray Stein(2015), 「Jung's Map of the Soul」, 김창한 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2015, 문예출판사.
- Roger Walsh & Franses Vaughan(1994), “The World View of  
Ken Wilber”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2(2),  
6-21
- Varela, F. J. · Thompson, E. · Eleanor Rosch(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석봉래 옮김, 「몸의 인지과학」, 2013, 김영사.

William James(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정명진 역, 「한 권으로 읽는 심리학의 원리」, 2018, 도서출판 부글북스.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앓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ssagioli's Disidentification  
and Daehaeng's Juingong Contemplation Method

이 광 숙 (한마음과학원) · 문 진 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Kwang Suk Lee (Hanmaum Science Institute) ·

Jin-Keon Mo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이 글은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 기법에 대한 중점적인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의 수행론과 정신통합의 영적 발달과정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행선사의 사상과 수행법을 심리학적 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행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철저히 경험에 바탕을 둔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유익한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를 심어주고 바른 인지와 바른 행동의 결과에 따른 심리치유적 변화를 도모하는 심리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행선사 스스로 출가수행자와 재가자의 삶의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행선사의 사상과 수행법은 심리학과 상담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심리학적 분석을 위해 대행선은 인간의 영적·종교적 측면을 심리학과 통합한 자아초월심리학의 틀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자아초월심리학 중에서 에고(ego)를 넘어선 상태, 의식의 변성(transformation), 정신적 수행 등과 같은 영적 발달과정을 세밀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베르토 앓사지올리(Roberto Assagioli, 1888~1974)의 정신통합 이론을 대행선과 비교하는 것은 향후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탐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의 인격이론과 발달이론의 틀에서 보면,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상당히 유사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정신통합은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

---

이자 심리학자인 앓사지올리가 정신분석의 이론과 영적 전통의 가르침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인간 경험의 영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심리학이다.<sup>1)</sup> 정신통합은 치유와 성장을 위해 전인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심리학으로서 의식의 성장과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추구하는 심리학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대행선의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진행된 두 체계의 비교 연구는 향후 대행선의 이론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행선의 다양한 수행법이 경험적으로 면밀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행선사의 사상은 진리관과 수행론의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sup>2)</sup> 먼저 대행선사의 진리관은 대표적으로 ‘한마음’과 ‘주인공’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 사상에서 탐색해 볼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인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정신통합의 이론과 먼저 비교하면서 주인공 관법과 탈동일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 주제어: 대행선, 앓사지올리, 주인공, 높은 자기(Self), 주인공관법, 탈동일시

---

1) Friedman, H.L. & Hartelius, G.(2020), 김명권 외 역, 『자아초월심리학 핸드북』, p. 57.

2) 김방룡(2019),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 『한마음연구』제3집, p. 315.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process of spiritu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nd the practice theory of Daehaeng Seon, which is a general term for Daehaeng Seon Master's thoughts and practice methods, through a focused comparison between the Juingong contemplation method and Assagioli's disident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Master Daehaeng's thoughts and practice methods from a psychological framework.

Looking at the teachings of Master Daehaeng(1927-2012)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y follow a methodology that is thoroughly based on experience, instilling motivation that promotes beneficial growth and change at the personal and social level,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correct cognition and correct behavior. It has a psychological system that promotes psychotherapeutic changes according to the results. Additionally, historically, Master Daehaeng herself suggested reasonable solutions or provided counseling regarding the problems in the lives of monks and laypeople. In this context, Daehaeng's thought and practice methods can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psychology and counseling.

Though there have been abundant Buddhist and religious studies on Master Daehaeng's thought and practice, psychological

---

---

studies on it are very rare. However, Daehaeng's ideology provides psychological healing methods and healing principles, and has a theoretical system on Juingong as a personality theory. For psychological analysis, it is most appropriate to analyze it within the framework of transpersonal psychology, which integrates human spiritual and religious aspects with psychology. Among the theorie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psychosynthesis of Roberto Assagioli(1888-1974), which explains in detail and clearly the spiritual development process such as the state of going beyond the ego,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and mental performance, shares close similarities with Daehaeng's thought and practic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templation method of Master Daehaeng and Assagioli's disidentification can lay the foundation for future exploration and analysis of Daehaeng's teachings using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and empirical psychology.

- Keywords: Daehaeng Seon, Psychosynthesis, Juingong, Self, Juingong Contemplation Method, Disidentification

# 1. 인격 이론

## 1) 초월적 자기 :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대행선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이 다르지 않아서 사람의 근본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sup>1)</sup> 이룸하여 주인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연의 총상(總相)으로서 한마음을 주체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인공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자 영원하고 무한한 진실의 ‘참나’로서 한마음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음’과 ‘주인공’은 같은 의미가 있다. 달리 말해서 한마음이 총상으로 설명된다면 주인공은 한마음의 내재성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주인공에 상응하는 정신통합의 개념은 Self(높은 자기)이다. Self는 높은 자기 또는 초월적 자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간 정신의 영원한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자기의 실제적인 근원이다. 비록 의식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의 진정한 자기(True Self)이다. 앗사지올리는 높은 자기가 힌두 요가 철학의 아트만이나 분석심리학의 자기 원형(Self)에 상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한마음선원(2022), 『한마음요전』 원리편2, pp. 346-350.

2) 한마음선원(2022), 『한마음요전』 원리편2, pp. 346-387.



앗사지올리는 자기에 관해 설명할 때, 두 종류의 자기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의식적 자기로서 ‘I(나)’라고 부른다. I는 자각과 의지가 주요 기능인 의식의 중심이다.<sup>3)</sup> 다른 하나는 Self로서 높은 자기(Higher Self) 또는 초월적 자기(Transpersonal Self)라고 불리는데, 지혜와 안내의 가장 깊은 원천, 즉 의식적 인격의 통제를 넘어서 조절하는 원천이다.

높은 자기(Self)와 의식적 자기(I)의 관계를 요약하면, 높은 자기는 의식적 자기의 실제 근원인 초월적 자기이고, 의식적 자기는 초월적 자기의 투사이자 반영이다. 높은 자기(Self)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적 의식을 넘어선 우주적 의식의 느낌을 통해 자각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True Self)이다.<sup>4)</sup> 앗사지올리는 의식적 자기(I)를 넘어 그 위에 있는 영구적인 정신의 중심인 높은 자기(Self)를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앗사지올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자각과 의지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자각과 의지 있는 노력으로 낮은 수준의 정신활동에 가려진 의식을 높은 수준의 정신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3) 존 퍼만, 앤 길라(2016), 『정신통합』(이정기, 윤선영 역), 서울: 씨아이알. pp. 21-46

4) 박성현·민희정(혜주)(2019),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Assagioli의 정신통합」, 『동아시아 불교문화』 39집, p. 388.

## 2) 정신의 구조:의식과 잠재의식

정신통합은 다른 정신역동적 심리학의 이론과 유사하게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또는 잠재의식)의 영역을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의식 영역의 중심에는 의식적 자기(I)가 있고, 정신을 통틀어 보면 그 중심에는 높은 자기(Self)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평소에 자기라고 인식하는 의식적 자기는 실제로는 참다운 자기인 높은 자기(Self)의 반조(返照)된 모습에 불과하다. 의식적 자기(I)의 실체는 영적 자아인 높은 자기(Self)이다. 그러나 높은 자기(Self)는 의식적 영역을 벗어나 있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어렵다.

평범한 수준의 의식상태에서 우리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의식의 내용과 잘못된 동일시를 함으로써 의식적 자기와 높은 자기의 본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통합에서는 신체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 감정, 느낌 등의 정서적 영역과 사고 및 판단 등의 정신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로 생기는 자아에 대한 관념 등을 동일시하는 것을 극복하고 순수한 자기(I)에 대한 자각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의식의 내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순수한 자기 자각의 내적 경험을 통해 높은 자기(Self)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신통합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자아실현은 의식적 자기(I)에 대한 순수한 자각을 넘어 높은 자기(Self)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인데, 앗사지

올리는 높은 자기(Self)에 대한 경험이 의식적 자기(I)에 대한 순수한 자기 자각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sup>5)</sup> 왜냐하면 I와 Self가 본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본래 하나의 자아가 두 개의 수준으로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대행선사의 사상은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므로 마음 또는 인간 정신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구조에 대한 모델이 없다. 그러나 대행선사 법문의 일부분을 모아서 연결해보면, 대행선에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구분, 자아에 대한 의식과 자아에 대한 잘못된 동일시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행선의 가르침을 보면, 현재의식은 항상 마음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록 다양한 내용의 의식들이 일어나지만, 현재의식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며 작용하는 순간에도 있고, 현실의 재입력 순간에도 있다. 대행선의 가르침에서도 현재의식은 궁극적으로 앗사지올리의 의식적 자기(I)에 대한 순수한 자각과 유사한 상태를 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만일 현재의식이 아집에 따라 작용하게 되면 이른바 중생심이 되어버리고, 주인공을 따르면 무심이 된다는 설명은 정신통합에서 잘못된 자기 동일시에 빠지면 의식적 자기와 높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의식의 내용과 탈동일시가 일

---

5) Assagioli, R.(1965), *Psychosynthesis : a manual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p. 113.

어난다면 순수한 자기(I)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의식적 자기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1) 주인공관법

대행선의 수행법은 초기불교의 삼학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계정혜 삼학 중에 특히 정학(定學)에 수행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한다. 정학은 ‘정진’, ‘염(念)’, ‘정(定)’으로 정진은 단순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 일상삼매와 평등선정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 대행선에서는 ‘정의 실천[定學]’이 정향임을 강조하는데, 정향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심일경성(心一境性)의 특징을 지닌다. 정학의 ‘염’은 대행선에서는 ‘관찰(觀察)’과 ‘관법(觀法)’으로, ‘정’은 ‘삼매’, ‘선정(禪定)’, ‘집중’, ‘심봉(心捧)’으로 확장된다.<sup>6)</sup>

대행선에서는 특히 관찰과 관법을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주인공관법’이라는 생활선법(生活禪法)을 제시하였다. 주인공관법은 대행선사가 반복적으로 가르친 수행법을 종합해 일컫는 말

6) 정준영(2019),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한마음연구』제3집, p. 28.

로서 ‘주인공’이 나를 포함한 전체 돌아가는 현상을 하나로 꿰어 묶은 공한 자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놓고 지켜보는 수행법이다. 이 관법의 구성 요소는 믿음, 놓음, 맡김, 지켜봄이다. 이 관법은 주인공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관법을 위해서는 말로만 주인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고 객관화시키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정신통합의 탈동일시와 매우 유사하다.

## 2) 탈동일시

앗사지올리가 심리치료를 위해 그리고 영적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문제는 바로 거짓 자기(false self)를 의식화하는 것이었으며, 주로 하위인격(subpersonality)을 의식화하는 것이었다. 거짓 자기란 실재하는 본래의 우리가 아닌, 그러나 우리가 본래 자신에 속한다고 믿는, 하위인격과 내면의 목소리이다. 개인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과업을 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성한 성격적 특성들은 그 사람의 삶에서 고유한 기능을 하는 경향을 지닌다. 앗사지올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하위인격이라고 불렀으며 개인의 생존인격으로 기능한다고 했다.<sup>7)</sup> 하위인격들은 매우 다르고 모순되는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위인격 간의 갈등이나 상호 억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7) 존 퍼만, 앤 길라(2016), 『정신통합』(이정기, 윤선영 역), 서울: 씨아이알. pp. 101-142

그래서 정신통합 치료의 목표는 개인이 하위인격을 자기라고 믿는 오류, 즉 하위인격과의 동일시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하위인격의 기능과 역할을 자각하는 과정을 거쳐 하위인격들을 유기적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발휘되는 치료적 기제가 바로 탈동일시이다.

‘탈동일시’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관찰을 말한다. 마음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순수한 I에 대한 자각도 따라온다. 의식의 내용과 그것을 관찰하는 ‘나’가 비로소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앓사지올리는 탈동일시를 의식의 여러 요소의 흐름과 그것을 ‘관찰하는 자기’를 명확하게 식별(discrimination)하는 것으로 보았다. 앓사지올리는 이것을 낮은 자기인 의식적 자기(I)가 높은 자기(Self)와 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아실현은 통합된 영적 중심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다.

앓사지올리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과 탈동일시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들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제한하고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깨어있는 마음을 계발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동일시 과정에서 해방된다. 동일시하려는 습관적인 힘과 여기서 벗어나는 탈동일시의 힘이 처음에는 팽팽하게 대립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탈동일시의 힘이 강해지면서 종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탈동일시의 과정의 끝에는 존재의 실상과의 만남이 있다. 이 궁극적인 실재는 그

것에 대한 설명적인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 또는 합일에 의해 알 수 있다. 앓사지올리는 이에 대하여 “최고의 실재와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sup>8)</sup>라고 표현하였다.

### 3.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유사성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비록 종교와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에 관해 유사한 이론과 수행법을 공유하고 있다. 두 체계의 실천적 부분(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어 비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두 이론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모두 인간 정신의 잠재력 실현과 전일성(全一性) 회복에 목표를 두고 그 전일성의 이론적 근거를 의식의 영역을 초월한 참다운 자기인 주인공 또는 Self에 두고 있다. 대행선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무명을 거두어 내어 우리의 본래 마음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본과 직결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정신통합의 목적도 인간 정신의 전일성 회복으로서 그것은 초월적인 자기(Self)와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

8) Assagioli(1973), The act of will, New York: Penguin Books. p. 90.

목적 달성을 위한 각각의 구체적인 수행법인 주인공관법과 탈동일 시도 서로 유사한 핵심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둘째,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의식의 관찰하는 힘을 통한 탈동일시 수행의 핵심요소로 삼는다. 정신통합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의 힘을 심리치료의 성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보고, 노력을 통하여 의식의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의식은 대개 평범한 의식상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에 반응하고 있어서 순수한 자각으로서 의식적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생존 인격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높은 자기(Self)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하위인격에 관한 관찰과 그것과의 탈동일시를 통해 의식의 수준이 높은 자기(Self)와 높은 무의식에 가까워지고 비로소 참다운 자신의 본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힘을 얻는다.

주인공관법도 노력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의식의 힘(관찰의 힘)을 키워서 본래의 참모습(한마음 주인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계정혜 삼학이 일상생활에서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대행선은 특히 일상삼매를 강조하고 사띠(마음챙김)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인공관법을 통해 삼학의 수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인공관법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하여 사띠와 심일경성이 항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인공관법에서 믿고 맡기는 작업은 정신통



합의 탈동일시와 매우 유사한 심적 상태이다. 즉, 의식의 내용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약해지고 관찰자의 마음을 끌어낸다.

셋째, 주인공관법의 무심과 정신통합의 순수한 자각은 매우 유사한 수행적 요소이다. 주인공관법에서는 ‘무심(無心)’이 강조된다. 주인공을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것은 무심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 주인공관법은 무심이 되기 위한 수행이면서 무심으로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이미 무심이 되었다면 새삼스레 ‘주인공’이다, ‘믿는다, 놓는다’ 하는 말조차 붙을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므로 주인공관법을 통해 무심이 되면 곧바로 본체와 상즉(相卽)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통합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탈동일시가 된 후에 남는 것은 순수한 자기 의식과 자아실현의 중심인 자신의 본질(Self)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신통합에서 이때의 I는 의식의 내용이 배제된 순수한 의식으로서 순전히 높은 자기(Self)가 반조된 모습이다. 이것은 주인공관법의 무심과 매우 유사한 마음의 상태이다.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비교를 통해 두 수행법은 공통으로 의식의 확장을 통하여 관찰의 힘을 발달시켜 자기실현과 본래의 자기와 합일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학의 입장에서 두 수행체계는 변용적 과정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변용적 과정이란 인간이 지닌 최상의 잠재력을 추구하는 심리학적인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목적 지향적으로 진화 중인 살아 있는 과정으로

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철학과 우주론을 환기하는 용어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해 대행선도 그중의 하나다.

## I. 연구 배경과 연구 목표

- 본 연구는 주인공 관법과 탈동일시 기법에 대한 중점적인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의 수행론과 정신통합의 영적 발달과정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 대행선사의 사상과 수행법을 심리학적 틀에서 이해
- 여기서 심리학적인 이해란 대행선의 이론을 전인 심리학(psychology of the whole person)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인 발달 이론, 인격 이론, 임상 이론으로 분석·재정리하려는 시도이다. (임상 이론은 제외함)

2

##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대행선

대행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 대행선은 철저히 경험에 바탕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유익한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를 심어주고
- 바른 인지와 바른 행동의 결과에 따른 심리치유적 변화를 도모하는 심리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또한 역사적으로 대행선사 스스로 출가수행자와 재가자의 삶의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제공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대행선사의 사상과 수행법은 심리학과 상담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3

###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대행선

- 대행선사의 사상과 수행법에 관한 불교학적·종교학적 연구에 비해 심리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대행선사의 사상은 심리치유의 방법과 치유원리를 제공하고, 인격이론(또는 성격이론 theory of personality)으로서 한마음과 주인공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4

###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비교

- 대행선은 인간의 영적·종교적 측면을 심리학과 통합한 자아초월심리학의 틀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 자아초월심리학 중에서 에고(ego)를 넘어선 상태, 의식의 변성(transformation), 정신적 수행 등과 같은 영적 발달과정을 세밀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앓사지올리(1888-1974)의 정신통합 이론을 한마음사상과 대행선으로 대표되는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비교하는 것은 향후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탐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5



##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비교

- 정신통합은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로베르토 앓사지올리(1888-1974)가 정신분석의 이론과 영적 전통의 가르침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인간 경험의 영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심리학이다.
- 치유와 성장을 위해 전인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심리학으로서 의식의 성장과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추구하는 심리학.
- 정신통합은 표면적으로 대행선의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 연구에 있어서 장애물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바탕에서 진행된 두 체계의 비교연구는 향후 대행선의 이론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행선의 다양한 수행법이 경험적으로 면밀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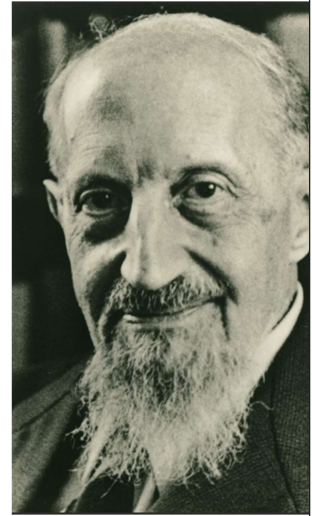
##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비교

- 대행선사의 사상은 진리관과 수행론의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먼저 대행선사의 진리관은 대표적으로 ‘한마음’과 ‘주인공’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 사상에서 탐색해 볼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인 마음의 구조와 기능, 마음의 차원 등을 정신통합의 이론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수행론을 비교하면서 특히 주인공 관법과 탈동일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심리치유법으로서 대행선의 특징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7

## 앗사지올리와 정신통합(PSYCHOSYNTHESIS)

- Roberto Assagioli(1888-1974):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정신과 의사
-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융의 분석심리학을 보완하여 정신통합을 창시함.
- 1965년 [정신통합-원리와 기법에 대한 편람  
Psychosynthesis: A Manual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 1974년 [의지의 작용 Will of Act]
- 1983년 *Psychosynthesis Typology, Transpersonal Development* 출간
- 1995년 당시 32개국에 107개의 정신통합 연구소가 존재



8

## II. 본론: 1. 인격 이론 1)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 1) 주인공

- 대행선사의 사상의 중심에는 ‘한마음’과 ‘주인공’이 있다.
- 한마음은 대행선사의 경험적 깨달음에 따라 밝혀진 진리에 관한 상징적인 이름이다.
- 한마음은 한 인간의 세계를 이루는 정신과 물질의 근본으로서 ‘일체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근거’로 파악된다.
- 주인공은 한마음과 같은 것으로서 “총상인 한마음에서 주체적 자각을 위해 인격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주인공은 한마음이 주체적으로 구체화된 실천수행의 핵심이다.

9

## II. 본론: 1. 인격 이론 1)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 2) Self

- 주인공에 상응하는 정신통합의 개념은 Self(자기)이다.
- Self는 높은 자기 또는 초월적 자기라고 불리기도 함.
- 인간 정신의 영원한 중심
- 의식적 자기의 실제적인 근원
- 비록 의식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의 진정한 자기(True Self)이다.
- 앗사지올리는 높은 자기가 힌두 요가 철학의 아트만이나 분석심리학의 자기 원형(Self)에 상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

## II. 본론: 1. 인격 이론 1)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 Self 와 I

#### 두 종류의 자기

- 하나는 의식적 자기로서 ‘I(나)’
- ‘I’는 자각과 의지가 주요 기능인 의식의 중심이다.
- 다른 하나는 Self
- 높은 자기(Higher Self) 또는 초월적 자기(Transpersonal Self)
- 지혜와 안내의 가장 깊은 원천, 즉 의식적 인격의 통제를 넘어서 조절하는 원천이다.

11

II.본론: 1. 인격 이론  
1)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 Self 와 I

- Self는 의식적 자기의 실제 근원
- 의식적 자기는 초월적 자기의 투사이자 반영이다.
- 앗사지올리는 초월적 자기를 의식적 자기(개인적 자기)를 넘어 그 위에 있는 영구적인 정신의 중심으로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II.본론: 1. 인격 이론  
1) 주인공과 높은 자기(Self)

## Self 와 I

- Self는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 전인성(wholeness)을 증진하고 자신의 존재 법칙에 충실하거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경험하게 한다.
- “I”는 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자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나’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이에 반해 Self는 초의식에 맞닿아 있기에 의식의 전반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
-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Self의 존재를 모른 채 생활하는 이유이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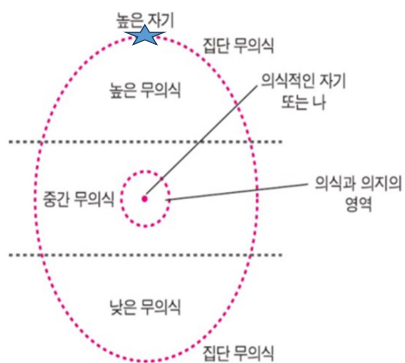


## 1. 인격 이론 2) 정신의 구조: 의식과 잠재의식

- 정신통합은 다른 정신역동적 심리학의 이론과 유사하게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또는 잠재의식)의 영역을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 의식 영역의 중심에는 'I'가 있고, 정신을 통틀어 보면 그 중심에는 Self가 있다고 주장한다.
- 개인이 평소에 자기라고 인식하는 'I'는 실제로는 참다운 자기인 Self의 반조된 모습에 불과하다.
- 'I'의 실체는 Self(영적 자아)이다. 그러나 Self는 의식적 영역을 벗어나 있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어렵다.

14

## 정신통합의 인격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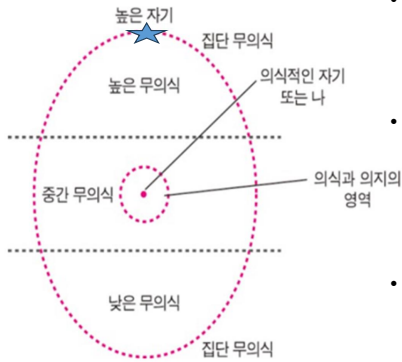


출처: Firman, J., & Gila, A. (2007). *Assagioli's Seven Core Concepts for Psychosynthesis Training*. California: Psychosynthesis Palo Alto.

-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밖의 정신의 요소인 감각, 감정, 충동, 상상, 사고, 직관 등의 내용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이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다.
- 앗사지올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자각과 의지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자각과 의지 있는 노력으로 낮은 수준의 정신활동에 가려진 의식을 높은 수준의 정신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15

## 정신통합의 인격 도식



출처: Firman, J., & Gila, A. (2007). *Assagioli's Seven Core Concepts for Psychosynthesis Training*. California: Psychoanalysis Palo Alto.

- 평범한 수준의 의식상태에서는 우리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의식의 내용과 잘못된 동일시를 함으로써 I와 Self의 본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 그래서 정신통합에서는 신체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 감정, 느낌 등의 정서적 영역과 사고 및 판단 등의 정신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로 생기는 자아에 대한 관념 등을 **동일시**하는 것을 극복하고 순수한 자기에 대한 자각(현존하는 I)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 의식의 내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순수한 자기 자각의 내적 경험을 통해 더 수준이 높은 영적 자아인 Self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6

## 대행선의 인격 모델

•대행선사의 사상은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므로 마음 또는 인간 정신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구조에 대한 모델이 없다. 그러나 대행선사 법문의 부분들을 모아서 연결해보면, 대행선에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구분, 자아에 대한 의식과 자아에 대한 잘못된 동일시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7

- 대행선의 가르침을 보면, 현재의식은 항상 마음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록 다양한 내용의 의식들이 일어나지만, 현재의식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며 작용하는 순간에도 있고, 현실의 재입력 순간에도 있다.
- 대행선의 가르침에서도 현재의식은 궁극적으로 앗사지올리의 'I' 에 대한 순수한 자각과 유사한 상태를 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 만일 현재의식이 아집에 따라 작용하게 되면, 이른바 중생심이 되어버리고, 주인공을 따르면 무심이 된다는 설명은 정신통합에서 잘못된 자기 동일시에 빠지면 'I'와 Self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의식의 내용과 탈동일시가 일어난다면 순수한 'I'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의식적 'I'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18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1) 주인공관법

- 대행선의 수행법은 초기불교의 삼학을 조화롭게 활용함.
- 계정혜 삼학 중에 특히 정학(定學)에 수행을 강조.
- 정학은 '정진', '염(念)', '정(定)'으로 정진은 단순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 일상삼매와 평등선정과 동등한 위치
- 대행선에서는 '정의 실천[定學]'이 정향임을 강조
- 정향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심일경성(心一境性)의 특징을 지닌다.
- 정학의 '염'은 대행선에서는 '관찰(觀察)'과 '관법(觀法)'으로 확장됨
- '정'은 '삼매', '선정(禪定)', '집중', '심봉(心棒)'으로 확장.

19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1) 주인공관법

- 대행선에서는 특히 관찰과 관법을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주인공관법’이라는 생활 禪法을 제시하였다.
- 주인공관법은 대행선사가 반복적으로 가르친 수행법을 종합해 일컫는 말로서 ‘주인공’이 나를 포함한 전체 돌아가는 현상을 하나로 꿰어 묶은 공한 자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놓고 지켜보는 수행법이다.
- 이 관법의 구성 요소는 믿음, 놓음, 맡김, 지켜봄이다.
- 이 관법은 주인공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관법을 위해서는 말로만 주인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고 객관화시키는 수행이 필요하다.
- 이 방법은 정신통합의 탈동일시와 매우 유사하다.

20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1) 주인공관법

- 믿음, 놓음, 맡김, 지켜봄
- 믿고 맡기기 - 자기 성품의 능력을 활용하는 실험
- 무조건 놓음 - 시비분별을 고집하지 않고
- 지켜보기 - 그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
- 성품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空)한 작용을 확인하면서 중도의 지혜를 계발하는 과정

❖ 참 자기를 공(空)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정신통합에서는 볼 수 없음.

21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1) 주인공관법

- 주인공관법은 평소의 의식 상태는 왜곡되어 있고 그러한 평소의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주인공관법의 믿고 맡기고 놓고 지켜봄을 통해 자기의 연속성과 동일성이라는 인식이 왜곡/오류라는 것을 통찰하도록 하는 점에서 정신통합의 탈동일시와 같은 치료 기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2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2) 탈동일시

• ‘탈동일시’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관찰을 말한다. 마음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순수한 ‘I’에 대한 자각도 따라온다. 의식의 내용과 그것을 관찰하는 ‘나’가 비로소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앗사지올리는 탈동일시를 의식의 여러 요소의 흐름과 그것을 ‘관찰하는 자기’를 명확하게 식별(discrimination)하는 것으로 보았다. 앗사지올리는 이것을 낮은 자기인 ‘I’가 높은 자기인 Self와 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아실현은 통합된 영적 중심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다.

23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2) 탈동일시

- 정신통합은 우리의 의식은 하부의식의 패턴에 사로잡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패턴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생존인격, 원상처, 거짓 자기
- 앗사지올리가 심리치료를 위해 그리고 영적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문제는 바로 거짓 자기(false self)를 의식화하는 것이었으며, 하부성격을 의식화하는 것이었다.

24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2) 탈동일시

- 거짓 자기란 실재하는 본래의 우리가 아닌, 그러나 우리가 본래 자신에 속한다고 믿는, 하위인격과 내면의 목소리이다. 하위인격들은 매우 다르고 모순되는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위인격 간의 갈등이나 상호 억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존인격)
- 그래서 정신통합 치료의 목표는 개인이 하위인격 등과 동일시하는 것을 약화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인격의 기능과 역할을 자각하여 하위인격들을 유기적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발휘되는 치료적 기제가 바로 탈동일시이다.

25



## 2. 수행론과 심리치유 방법의 유사성

### 2) 탈동일시

- 앗사지올리에 따르면,
- 개인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 그리고 개인은 자신과 탈동일시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들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제한하고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깨어있는 마음을 계발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동일시 과정에서 해방된다.
- 동일시하려는 습관적인 힘과 여기서 벗어나는 탈동일시의 힘이 처음에는 팽팽하게 대립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탈동일시의 힘이 강해지면서 종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탈동일시의 과정의 끝에는 존재의 실상과의 만남이 있다.
- 이 궁극적인 실재는 그것에 대한 설명적인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 또는 합일에 의해 알 수 있다. 앗사지올리는 이에 대하여 “최고의 실재와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26

## 3.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유사성



Assagioli:

“현재의 의식,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인식하는 ‘나’는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이것은 감각, 감정, 생각 등의 심리적 작용과 탈동일시 되고 남은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27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기정체성으로부터 나의 인격, 나의 자아(ego)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내용을 버린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 자신의 본질 -순수한 자기 의식과 자아 실현의 중심- 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삶의 다채로운 흐름에서 불변의 요소이다. 이것은 나에게 존재감, 영속감, 내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나는 순수한 자기 인식의 중심으로서 내 자신을 인지하고 확신한다. 나는 이런 중심이 정적인 자기 자각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힘도 가진다고 깨닫는다. 이것은 정신적 과정과 육체적 몸을 관찰하고, 통달하고, 총괄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자각과 힘의 중심이다.

Assagioli, Roberto(1965), *Psychosynthesis : a manual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28

“의식의 흐름과 내용에서 자신을 탈동일시 하는 연습은 그것들과 구분되는, 그것들을 관찰하는 중심점으로서의 ‘순수한 나 [I]’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때 나의 의지가 몸과 마음에 작용하여 활용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의 경험들을 배제한 순수한 자기를 알아차리는 과정은 자기의 실체[Self]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ssagioli, Roberto(1965), *Psychosynthesis : a manual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29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게 관이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보라.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한 것이다. 사실 일체 경계를 관한다 하지만 그 경계 또한 한마음 안의 일이니 경계가 따로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지켜볼 경계가 있으니 놓고 관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놓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팎경계를 지켜보는 자기를 보고자 하게 된다.”

『한마음요전』

30

“관한다 함은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요, 결코 둘로 보지 않고 지켜봄이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자 관이다. 주인공에다 믿고 맡겨 놓고 무엇이 나오는지 지켜볼 뿐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라.”

『한마음요전』

“관에도 놓는 관, 둘 아닌 관, 내 일심으로의 관, 일심도 없는 무심관이 있다. 관한다 함에도 고정됨이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심관이 되기는 어렵다. 먼저 일체 만법을 주인공 자리와 둘 아니게 보는 일심관이 성숙된 이후에 무심관이 되는 것이다.”

『한마음요전』

31

### Ⅲ.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의 유사성

- 모두 인간 정신의 잠재력 실현과 전일성(全一性) 회복에 목표를 두고 그 전일성의 이론적 근거를 의식의 영역을 초월한 참다운 자기인 주인공 또는 Self에 두고 있다.
- 대행선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무명을 거두어 내어 우리의 본래 마음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본과 직결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 정신통합의 목적도 인간 정신의 전일성 회복으로서 그것은 초월적인 자기(Self)와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수행법인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도 서로 유사한 핵심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32

####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의 유사성

•정신통합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의 힘을 심리치료의 성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보고, 노력을 통하여 의식의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의식은 대개 평범한 의식상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에 반응하고 있어서 순수한 자각으로서 의식적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생존 인격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Self(높은 자기)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하위인격에 관한 관찰과 그것과의 탈동일시를 통해 의식의 수준이 Self와 높은 무의식에 가까워지고 비로소 참다운 자신의 본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힘을 얻는다.

33



###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의 유사성

- 주인공관법도 노력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의식의 힘(관찰의 힘)을 키워서 본래의 참모습(한마음 주인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계정혜 삼학이 일상생활에서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대행선은 특히 일상삼매를 강조하고 사띠(마음챙김)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인공관법을 통해 삼학의 수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인공관법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하여 사띠와 심일경성이 항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인공관법에서 믿고 맡기는 작업은 정신통합의 탈동일시와 매우 유사한 심적 상태이다. 즉, 의식의 내용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약해지고, 관찰자의 마음을 끌어낸다.

34

### 주인공관법과 탈동일시의 유사성

- 주인공관법에서는 다시 ‘무심(無心)’이 강조된다. 주인공을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것은 무심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 주인공관법은 무심이 되기 위한 수행이면서 무심으로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일체 만법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두고 가라. 그리하여 무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이미 무심이 되었다면 새삼스레 ‘주인공’이다, ‘믿는다 놓는다’ 하는 말조차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즉(卽)일 뿐이다.”라고 하여 주인공관법을 통해 무심이 되면 곧바로 본체와 상즉함을 말하고 있다.

35

- 이것은 정신통합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탈동일시가 된 후에 남는 것은 순수한 자기 의식과 자아실현의 중심인 자신의 본질(Self)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신통합에서 이때의 I는 의식의 내용이 배제된 순수한 의식으로서 순전히 Self가 반조된 모습이다. 이것은 주인공관법의 무심과 매우 유사한 마음의 상태이다.

-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비교를 통해 두 수행법은 공통으로 의식의 확장을 통하여 관찰의 힘을 발달시켜 자기실현과 본래의 자기와 합일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심리학의 입장에서 두 수행체계는 변용적 과정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변용적 과정이란 인간이 지닌 최상의 잠재력을 추구하는 심리학적인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목적 지향적으로 진화 중인 살아 있는 과정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철학과 우주론을 환기하는 용어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해 대행선도 그 중의 하나다.

불교에서의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 함의성:

인순(印順)대사와 증엄(證嚴)대사의 철학

The Mutual Entailment of Humanism and Altruism in  
Buddhism: the Philosophies of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치엔테 린(Kent Lin)

(대만 자제(慈濟)대학교 종교와 인문학 연구소 소장)

Chien-Te Lin

(Distinguished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Religion and  
Humanities at the Buddhist Tzu-Chi University, Taiwan)

---

\* This is currently a draft and will require additional work to reach maturity.

\*이 원고는 이후에 좀 더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는 현대 사상의 두 가지 발전을 상징하지만 대부분은 서양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이 논문은 이와 달리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 출발하여, 특히 현대 대만의 “인간불교” 흐름에 중점을 두고 불교의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를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인순대사와 증엄대사를 예로 들어, 불교에서 인본주의가 이타주의와 거의 동의어임을 논합니다. 인간불교 속에서는 이타주의와 인본주의가 서로를 포함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입니다.

서론과 결론은 별도로 하고, 본문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대만 인간불교의 정신적 측면을 논하고, 인본주의와 이타주의가 인간불교(renjian fojiao 人間佛教)의 그 두 가지 정신적 핵심임을 밝힙니다: 인본주의는 합리성과 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타주의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인순대사와 증엄대사는 각각 인간불교의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를 대표하는 예가 됩니다. 둘째 부분은, 인본주의 정신 속의 이타적 측면과, 이타적 감정 속의 인본주의 정신을 각각 탐구함으로써, 대만의 인간불교에서 인본주의는 이타적 인본주의이며, 이타주의는 인본주의적 이타주의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 의존성이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 도전들에 직면한 인류를 도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임을 주장합니다.

● 주제어: 인간불교, 보살행, 인본주의, 이타주의, 인순대사, 증엄대사

Humanism and altruism symbolize the two developments of modern thought, but most of them are understood from the context of Western culture. This article departs from Eastern philosophy and relig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trend of “Humanistic Buddhism” in contemporary Taiwan, to illustrate humanism and altruism in Buddhism. Taking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as example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at humanism is almost synonymous with altruism in Buddhism, and vice versa. Altruism and humanism in Humanistic Buddhism are mutually inclusive,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In addition to the preface and conclusion, the writing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t discusses the spiritual connotation of Humanistic Buddhism, and points out that the humanism and altruism are the two core spirits of Humanistic Buddhism (renjian fojiao 人間佛教): while humanism emphasizes on rationality and wisdom, altruism stresses on compassion.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each represent an example to show the humanism and altruism of Humanistic Buddhism separately. Secondly, by exploring the altruistic sentiments embedded in the humanistic spirit, and the humanistic spirit contained in the altruistic feelings,

---

---

it can be seen that the humanism is altruistic humanism and the altruism is humanistic altruism in Humanistic Buddhism. Finally, it claims tha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humanism and altruism is not limited to only Buddhist teachings, but may signify universal or common values of humanity which can be promoted and developed to help human beings face current challenges and guide us towards a better future.

- Keywords: Humanistic Buddhism, Bodhisattva path, humanism, altruism, Master Yin Shun, Master Cheng Yen.
-



# 1. Introduction

“Humanism” is a trend of thought that has arisen in the modern Western culture, challenging the dominant influence of medieval philosophy and theology that centered around God as the only belief and relied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as guidance of human understanding of the world. Humanism returns to our reason to seek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s well as to pursue meaning of life, representing the advancement and evolution of civilization as time goes by. Besides, there are also debates between “altruism” and “egoism” regarding to our human nature in philosophical inquiry,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being purely altruistic or ultimately only for self-interest.

Though today humanism and altruism are mostly understood and thought from the context of Western cultural thought, Eastern philosophy have its own features of humanism and altruism. This article thus explores the perspective of “Humanistic Buddhism” in contemporary Taiwan to claim altruism is also humanism, and vice versa. That is, altruism

and humanism are inseparable, or mutually inclusive, in the thought of Humanistic Buddhism. Humanistic deed is the practice of altruism, and altruist deed is also humanistic practice.

Although Eastern humanism is human-centered, the supremacy of human beings does not imply domination of other beings but more focused on serving of others. Humanism in Buddhism, for instance, may not necessarily be a matter of faith, but primarily a cultivation of spirit and virtue that expands love and care from individual to all beings. This article thus aims to provide a preliminary comparison of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es in the context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to demonstrate the significance of humanism and altruism within idea of Humanistic Buddhism in the philosophies of Yin Shun and Cheng Yen.

## 2. Humanism and Altruism in “Humanistic Buddhism”

Humanism and altruism are understood in their general sense in this paper. Defined by the online Cambridge Dictionary, humanism is “a belief system based on the needs of humans, their spirit, and emotions, which can be satisfied without following a god or religion.” This form of humanism is closely related to anthropocentric humanism, which places humans at the center. Such humanism and anthropocentric humanism closely related, both of which are reactions against the theocentrism of religious traditions. However, “human-centered” does not mean that human beings can dominate everything in the world to enjoy special privileges, falling into human chauvinism or human exceptionalism. Instead, it emphasizes the moral obligations of humans towards all forms of existence, including animals, plants, and even minerals.

While humanism and humanitarianism are distinct concepts, they are closely interconnected. Probably we could say humanism stress on theoretical aspect and humanitarianism

is more action-oriented, both share a common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humanity. Humanitarianism, as defined by the online Cambridge Dictionary, is “a belief in improving people’s lives and reducing suffering.” It can be seen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benevolent ideals inherent in humanism including fostering friendship, equality, kindness, and universal love among individuals.

Altruism refers to the willingness to do things that bring advantages to others, even if it results in a disadvantage for the actor. Also it may mean helping others without seeking personal benefit in return. The opposite side of altruism is egoism which prioritizes self-utility. The spirit of humanism may encompass altruism, just as humanism to some extent includes humanitarianism. Humanitarianism thus not only aligns with humanism but also embodies the meaning of altruism. Probably we could say that humanitarianism serves as a bridge between humanism and altruism. In brief, the three concepts altruism, humanism and humanitarianism are closely related and interconnected.

## 1.1 The basic ideas of “Humanistic Buddhism”

Humanism and altruism are interrelated in “Humanistic Buddhism.” This article aims to illustrate this viewpoint through the examples of two prominent Taiwanese masters,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In the numerous works of Master Yin Shun, ultimately he took “Humanistic Buddhism” as the concern of his lifelong thoughts. “Humanistic Buddhism” emphasizes the care for the present time, the present place, and the present human beings, claiming that the practice of Buddhism should not solely focus on the Pure Land in another realm but rather on creating a “Pure Land in this world.” While taking suffering in this real world as the main concern of Humanistic Buddhism, this Buddhism inherits the Mahayana Buddhist tradition and pursues the practice of the Bodhisattva way. Humanistic Buddhism and the Mahayana Bodhisattva way can almost be regarded as similar meanings in Yin Shun’s mind.

According to Master Yin Shun, as human beings we should understand and practice Buddhism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highlighting the approach of “de-godifying” or “de-ghosting” features. This kind of Humanistic Buddhism contains two meanings: first, to understand the world and solve the current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ings as well as the teachings of Buddhist truth; second, as human beings, we have our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caring for everything around us, not limited to human beings, but also including all the people and things that we live with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 we live in. Thus, the equivalence between Humanistic Buddhism and Bodhisattva Way reveals that humanism is altruism, and altruism is also humanism. The term “altruism” here includes benefiting others, benefiting other species, and benefiting the environment.

## **1.2 The combination of the wisdom of humanism and the compassion of altruism.**

Between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it can be initially said that the former emphasize on the humanistic

aspect of Buddhism, while the latter is more on altruistic. As mentioned earlier, Master Yin Shun's "Humanistic Buddhism" advocates "human-oriented" and "Buddha was in the human world" in order to counteract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mysticism in the later period, which gradually lost the human feature of Buddhism and weakened the authenticity of Buddhist practice. This would have a similar background to the rise of Western humanism in the 16th century, reminding to return back to the concern and care of "human" as the main subjects. On the other hand, Master Cheng Yen's empathy personality cannot bear the suffering of sentient beings, and what surges in her heart is the uneasiness and intolerance of the suffering among people, which inspires her practice of compassionate relief. The term "altruism" appropriately signifies her lifelong commitment.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can be said to have created a paradigm for Buddhist humanism and Buddhist altruism respectively. Since Buddhist humanism can be said to be altruism, and altruism is also humanism,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e of bodhisattvas in Humanistic Buddhism can

be seen mainly from their different emphasis on wisdom or compassion. For example, Master Yin Shun, a scholarly monk who explores Buddhist theories, has devoted himself to writing books for many years, and he described himself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wisdom-oriented” (智增上). In contrast, Master Cheng Yen’s practice is to care about the disadvantaged people suffering from poverty and illness. For example, the “Tzu Chi” (慈濟) founded by Master Cheng Yen includes the meanings of “compassionate relief” and “charity aid”. Her distinctive disposition is the clear tendency to be “compassion-oriented” (悲增上).

### 3. Master Yin Shun and Master Cheng Yen as the role models of Humanist and Altruis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accentuation on wisdom or compassion, both are essential learning objectives leading to the Bodhisattva path. The Bodhisattva’s “twin cultivation of compassion and wisdom” 悲智雙運 is originally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e following is a further discussion of humanism and altruism in Humanistic Buddhism by the instances of the two masters.

### 1.1 Humanism in Humanistic Buddhism: The View of Master Yin Shun

The philosophy of “humanism” suggested in Master Yin Shun’s “Humanistic Buddhism” is clearly expressed in his early works. This can be seen in the preface of his 1942 book, *“Buddhism in India.”* The key poi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a) Awakening of the significances of “this time, this world, and these human beings”

The departure of Buddhism from the present world caused Chinese Buddhists like Liang Shuming 梁溯溟 to stop studying Buddhism and convert to Confucianism in the early twenty century. This stimulated Master Yin Shun to reflect further to point out that the ancient

Confucians' keeping away from Buddhism (or even “denying Buddhism”) also stemmed from similar misunderstandings. Though the vow of Mahayana Buddhists to pass through the different realms to saving all sentient beings is great, they cannot ignore what is close at hand and pursue the far afield, otherwise it will be “speaking high but acting low”, forsaking the Buddhist features of “this moment, this place, this person”.

b) Inspired by the “Buddha’s Birth in the Human Realm” in the *Āgama Sūtras*

In the early days of Master Yin Shun’s study of Yogacara philosophy, he delved into the origins of the *Āgama Sūtras* and learned that “all Buddhas born in this human world, and never attain the Buddhahood in heaven.” He realized that although there are countless worlds, the Buddha specifically expounds the Dharma in this human world, manifesting his teachings primarily among human beings. The emphasis on this world and focus on human beings revealed the Buddha’s genuine teachings. Master

Yin Shun was deeply moved by this realization and shed tears of joy.

c) The de-mystification, e.g. theologization and ghostization of Buddhist teachings

Master Yin Shun said in the preface of Buddhism in India: The special view of Shakyamuni is marked with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 and non-self, which is against the Vedas’ theory of constant self. But later Buddhism developed the tendency of “true eternal idealism”, which instead merged with the thought of eternity, over-integrating Brahmanism and moving towards Brahmanization and mixing with various heterodox and orthodox beliefs; the special view of the Buddha thus has been forgotten.

d) Walk on the right way to practice as a Bodhisattva in the human world

Master Yinshun recognized the simplicity and plainness of the Buddha’s teachings, but the Dharma should not be

limited to self-liberation but should follow the Buddha's long-term Bodhisattva practice; he followed Nāgārjuna's teachings to conclude three spirits of Bodhisattva's practice: "forgetting oneself for the sake of others," "exerting oneself for his own mission," and "embracing great responsibilities for far-reaching goals", suggesting that the Bodhisattva's model is worthy of imitation and advocating the practice of the altruism through righteous actions in the world.

From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Master Yinshun already tended to study and believe in Buddhism in a rational way in his early years, instead of simply taking it as idol worship, emotional sustenance, authority dependence, and imagination satisfaction. Such a rational approach to learning Buddhism also corresponds to the independent spirit of Buddhism: "taking the Dharma as the only teacher", "relying on the Dharma but not on particular individuals," and "relying on oneself, the Dharma, but not rely on anything other than these two". This understanding formulates the characteristics

of his Humanistic Buddhism as well as shows the spirit of “humanism”.

### **3.2 Altruism in Humanistic Buddhism: The View of Master Cheng Yen**

Master Cheng Yen’s founding of Tzu Chi and her earnest expectations for Tzu Chi volunteers are clearly expressed in the “Tzu Chi’s Manifesto of Aspirations”〈慈濟志言〉. Although “Tzu Chi’s Manifesto of Aspirations” consists of only a little over 560 words, it is widely known among the Tzu Chi community. During the collective training courses of Tzu Chi or official ceremonies in Tzu Chi, it is respectfully recited by the volunteers. Recently, it has even been made into a scroll as a “family heirloom” handed down by Master Cheng Yen to her disciples. The entire text expresses the Master as well as Tzu Chi’s beliefs, spirit, ideals, and methods. It could be briefly summarizes as the followings:

a) Basic beliefs of Tzu Chi

In the beginning the “Tzu Chi’s Manifesto of Aspirations” states that the Tzu Chi Merit Association upholds the belief of “Great Mercy without Boundaries, Great Compassion with Shared Nature”, (「無緣大慈、同體大悲」) and embraces the expectation of “For Buddhism, For Sentient Beings” from Master Yin Shun, engaging in the mission of helping the poor and educating the rich.

b) The ideal and method of Tzu Chi

Tzu Chi’s ideal is to cultivate a compassionate heart through “relieving suffering and aiding those in need,” bringing joy and alleviating suffering to create a pure and clean world. Its method is to employ harmonious wisdom and invite virtuou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o work together in cultivating a field of blessings, diligently nurturing countless hearts of kindness, and jointly pursuing a loving society.

c) Perceive the reality of impermanence and walk on the Bodhisattva way

Life is impermanent, life is passing away with each passing day, value the preciousness of life, do good deeds, obtain good fruits, go deep into the treasure mountain, and never return empty-handed. Living with wisdom and support each other with love, so that all can walk hand in hand on the Bodhisattva path with extraordinary causes and conditions.

d) Taking *Avalokitesvara* (Guanyin) Bodhisattva as a model of “Hearing the Sound to Rescue Suffering”

Tzu Chi practitioners “take the Buddha’s heart as their own” and, therefore, when they see, their eyes are like a thousand eyes; “take the Master’s ambition as their own ambition”, their hands are like a thousand hands, imitating the thousand hands and eyes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hearing the sound to save suffering promptly and providing immediate help.

e) Let love and kindness circle around the society

Recognizing the rarity of human life, we should be brave and diligent to pursue the Bodhisattva way, let love be full of society, and let goodness circulate in society. This is the path to the cultivation of merits and wisdom, as well as maintaining right faith and mindfulness as disciples of Buddhism.

In the above introduction of the “Tzu Chi Manifesto of Aspirations”〈慈濟志言〉, the recurring words of kindness, goodness, love, compassion, Bodhisattva, right faith, and mindfulness reflect Master Cheng Yen’s deep devotion. We can see that the Tzu Chi mission led by Master Cheng Yen is grounded on the value of compassion and the altruistic philosophy of benefiting others.



### 3. The altruistic sentiments inherent in the humanistic spirit of “Humanistic Buddhism”

#### 1.1 Altruistic humanism and humanistic altruism

Although Buddhism is a religion, it is a non-theistic religion that does no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 creator; and the Buddha in history is a human being with the same attributes as all other humans. The Buddha was a remarkable human being, but not a “superhuman”. Also as pointed out by Amartya Sen, the Buddha’s deep and abiding humanity is closely related to why he can continue to be a subject of interest and appreciation for centuries or even thousands of years. This can be understood from the fact that the Buddha, as a human being, practiced diligently to achieve enlightenment. The Buddha suggests a path that getting rid of suffering and achieving happiness does not depend on the arbitrary domination of gods. Anyone, regardless of skin color, race, status or class, can get rid of suffering and realize a perfect personality through their own practice.

According to the humanistic characteristics of Buddhism, the reasonableness of ethical norms or guidelines is because they are in line with human mind, leading to the manifestation of altruistic actions, or at the very least, refraining from harming oneself and others. For example, the “Five Precepts” of Buddhism introduced in the *Āgama Sūtras* is conducted by “the Dharma exposition applicable to oneself” (Pali: *attupanāyiko dhammapariyāyo*); this is similar to the golden rule of the Christian tradition, “We should not treat others the way we do not like to be treated”, also like *The Analects* says, “What you do not want to do to yourself, do not do to others.” Since Buddhist teachings emphasize the concern of human feelings and human relationships, it can be seen that the foundation of Buddhist morality is based on common human thought, and thus their moral regulations conform to human nature.

Furthermore, the “humanities” interpreted by Master Cheng Yen is “model of human virtue, treasurable in culture and history” 人品典範, 文史流芳. Based on this meaning of “humanities”, we will carry out compassionate moral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thereby shaping what is known

as “Tzu Chi Humanities” 慈濟人文. “Tzu Chi Humanities” include the practice of altruism, and such altruistic practice and humanistic commitment are both for others and self-cultivation. According to Master Cheng Yen, this begi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aily chores in our life, starting within the family and deepening and widening to society. It covers at leas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ssion, joy, honesty, contentment, gratitud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in “Tzu Chi Humanities” to be the important cornerstones of altruism.

Humanistic Buddhism underscores the intrinsic nobility of human behavior rather than the reliance on transcendent holiness, setting it apart from faiths that center around prayer and dependence. It examines spiritual practices through the lenses of life, human nature, the human world, and human values while disregarding supernatural faith in deities and spirits. At its core, it embodies qualities such as simplicity, rationality, independence, and dignity. This perspective shows that embracing Buddhism differs significantly from believing in a divine entity; the Buddha doesn't need to be regarded as “divine” to showcase his greatness. In contrast

to the concept of divine salvation, the emphasis is placed on self-reliance and the cultivation of high moral conduct, which includes altruistic behavior. Consequently, the process of self-improvement through individual effort takes precedence over seeking external aid.

To summarize, the feature of humanism in Buddhism doesn't solely revolve around attaining salvation through faith (“faith-based salvation”) or seeking the counsel of supernatural forces. Instead, it focuses on transforming one's own fate or karma through ethical conduct. This ethical conduct is manifest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emphasizing behaviors characterized by altruism and assisting others.

### **3.2 Bodhisattva Practice in the Human Realm**

The fusion of humanism and altruism within Buddhist philosophy can be succinctly summed up by what Master Yin Shun said about the practice of “Human Bodhisattva”. According to Master Yin Shun, this practice of “Human Bodhisattva” is rooted in mercy and compassion, dedicating

to the welfare of others revolves around benefiting all sentient beings rather than solely pursuing personal liberation.

Master Cheng Yen regards that “Tzu Chi” as a training ground for Human Bodhisattvas. As mentioned, she advocates altruism to help others in the human world, so she guides altruistic actions through a humanistic approach. As she said: “Buddhism must be in real life, and those who know how to practice in real life are the real Bodhisattvas, and those who cannot practice to live cannot be Bodhisattvas. Therefore, Buddhism must be applied into present life, and Bodhisattvas must be humanized, after leaving the world we cannot be a Bodhisattva.” Furthermore, Master Cheng Yen describes the practice of being a Human Bodhisattva as an ongoing process that spans multiple lifetimes. The human realm is like a circular field where the light of Dharma wisdom is continuously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teachings.

In short, the term “Human Bodhisattva” may illustrate the Buddhist concern for human beings in this present world. Since this characteristic of Buddhist practice is based on

humanism and altruism, it highly respects different paths of spirituality, including various decent religions, since they conduct human beings walking on the righteous ways.

#### 4. The universal development of altruistic humanism and humanistic altruism.

Altruism can be observed in various religions around the world. The teachings of love, compassion, or benevolence within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can all be seen as expressions of altruism. However, the core of the performance of altruistic behavior lies in the recognition of common humanity and has nothing to do with specific religious beliefs or socioeconomic status. Since human behavior is not based on self-interest, we all have the altruistic tendency to treat others as fellow human beings, rather than as a stranger, even if we have different views on issues such as morality, civil rights, and welfare. Moreover, the current research on altruism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science also confirms that

the altruism of sympathy is human nature, pointing out that empathy-induced altruism is within the human faculty. It is ubiquitous in human interaction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ursuit and realization of human happiness.

From this perspective, it becomes evident that humanism and altruism should not be confined to specific religions, nor are they exclusively tied to “Western values.” Instead, they possess a universal quality and can be regarded as “universal values.” In using the term “universal,” borrowing a concept from Christian terminology, it can be likened to “ecumenical.” This means it is not restricted to promoting unity among various Christian denominations, but it can be broadly focused on fostering harmony among different religions, as defined in the Cambridge Dictionary: “tending to support and encourage unity among different religions.” The idea of “universal” extends further to encompass a sense of universality, emphasizing the commonality and shared humanity among people. It signifies harmony and cooperation among all individuals, allowing humanistic altruism and altruistic humanism to serve as a common language that

bridges the gap among people.

In other words, humanism and altruism are developed on the premise of “common humanity”, which is not only common to religions, but even more so in the practice of Buddhist beliefs. For instance, the 14th Dalai Lama has constantly emphasized the fundamental values of human beings in various occasions and writings, including love, compassion, justice, forgiveness, tolerance, and equality. He has repeatedly stressed on the understanding of secular ethics and advocated to ground religious ethics in common humanity. He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being a human being first before being a religious person, rather than prioritizing religious identity over one’s basic role and responsibilities as a human being.

The Dalai Lama believes that inner values are necessary for everyone, but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developed through religion. He said that spirituality has two dimensions: basic spiritual well-being, which involves the resilience and emotional balance within oneself. This has nothing to do with religion but the natural tendency of innate human being (including the pursuit of compassion, benevolence, mercy,



etc.), the second is religious-based spirituality, which is related to our cultural upbringing and specific beliefs and habits. The Dalai Lama made a creative metaphor, thinking that the two are like water and tea, and the secular ethic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religion are just like water, which is necessary for life to maintain our health and survival. The ethical teachings of religion can be compared to tea, although the main ingredient is water, but it also contains tea leaves and other possible flavorings (such as salt or sugar) to make it more nutritious and beneficial, so that we can enjoy it every day. But the main ingredient of tea is still water. We can live without tea but not without water. Similarly, we can live without religion, but we cannot live without mercy and compassion.

It can be seen that the Dalai Lama regards basic human spirituality as more fundamental than religion. This is similar to the perspective presented by Master Yin Shun's essay "General Morality and Buddhist Ethics", distinguishing between two levels of morality. He believes that "Buddhist ethics" is based on "general morality". Only by doing one's duty well can one begin to practice Buddhism, and this is

the first step in learning Buddhism. In f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 becoming a good person ultimately is equivalent to becoming a Buddha”, complete wisdom and enlightenment depend on the cultivation of virtuous conduct and personal integrity.

In short, the concept of common humanity assumes the universality and consistency of human experience. Taking common humanity as the basis for human behavior and as the premise of conflict dialogue should be the general consensus of today’s human beings. Therefore, individuals with religious beliefs should not narrow-mindedly believe that devout faith alone is sufficient to solve all problems, but instead they should reflect on the inherent values found in secular ethics, such as goodness, compassion, tolerance, courage, sincerity, and wisdom, as the ethical norms of all mankind, which are both independent and interlinked with religion. By embracing these values, human happiness and peace can be achieved, and a brighter future can be anticipated.

## 5. Conclusion

Humanism and altruism are well-known concepts among modern peopl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vergence and mutual enrichment of humanism and altruism within the context of “Humanistic Buddhism” in Taiwan, by Master Ying Shun and Master Cheng Yen as examples. It discusses the practice of bodhisattva in Humanistic Buddhism, which encompasses both profound humanistic and altruistic ideals. In this context, while humanism may emphasize on the cultivation of Bodhisattva wisdom, altruism on compassion. However, within the framework of Humanistic Buddhism, humanism and altruism are inseparable and mutually inclusive. This means that the advocacy of humanism inherently entails the practice of altruism, and the stance of altruism also values the worth of humanity and presumes humanism. This would be similar to the concept of “the integration of compassion and wisdom” 悲智雙運 in Mahayana Buddhism, which signifies that the compassion of bodhisattvas cannot exist without wisdom, and vice versa. Humanism and

altruism are interwoven and mutually entailing within the philosophical system of Humanistic Buddhism. At all but not least, the ideals of altruism and humanism demonstrated in Humanistic Buddhism not only align with universal values in the present time but can also serve as a shared goal for all humanity. It transcends religious beliefs, cultural customs, geographical boundaries, and racial differen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dialogue can occur, and collective efforts can be made towards a brighter future for the world.

#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Juingong and Hanmaum

이 상 호 (서강대학교 박사)

By Sang-ho Lee (Ph.D., Sogang University)

대행사상의 원리관은 수행의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마음 원리’는 2004년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을 통해 제시된 개념이며, ‘생명의 근원 $\leftrightarrow$ 마음냄 $\leftrightarrow$ 마음나툼(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 원리’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행선사가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대행선사의 친설을 근거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주인공 원리’이다.

한마음 원리의 구성 요소는 생명의 근원, 마음냄, 마음나툼(현상화) 등의 세 요소이지만, 주인공 원리는 생명, 생각, 육신 등의 세 요소이므로 서로 다르다.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두 원리를 동일한 뜻으로 간주할 때는 구상적 개념인 육신을 마음나툼(현상화)의 추상적 개념으로 일반화시킴에 따라 일반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원리로 간주할 때는 마음내기와 마음나툼(현상화)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기에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주인공 원리의 세 요소에 마음나툼(현상화)을 합쳐서 4요소로 만드는 경우다. 이때는 육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마음나툼(현상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를 갖는다. 넷째, 주인공 원리의 세 요소에 삼정지각 불이법의 세 요소, 즉 견성, 불이, 나툼 등을 합쳐서 6요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는 수행과 견성 후 최종 나툼의 단계까지 대행사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므로 원리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마음나툼(현상화)을

---

견성 후 최종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그 이전의 나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대행사상의 원리는 대행선사의 친설에 의한 주인공 원리를 사용하되, 별도로 주인공 원리의 3요소에 마음나툼(현상화)을 합쳐서 ‘원리+현상화’의 개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인공은 심성과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인공 원리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행선사는 심성과학은 생활과학이며,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한생각 할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 생활과학이라고 한다. 이때 한생각은 마음내는 것이고 작품은 육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행사상은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선불교의 종교성과 심성과학의 실증성이 불이적 관계로 만나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으며, 선불교는 수행적 측면, 심성과학은 생활적 측면으로서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 수행과 생활 간 불이성을 강조한다.

• 주제어: 주인공 원리, 한마음 원리, 육신, 마음나툼(현상화), 관법, 삼정지각 불이법, 심성과학

---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teachings of Seon Master Daehaeng provide both a foundation for practice and a standard for assessing alignment with set objectives. The concept of ‘Hanmaum Principle’ was introduced in the 2004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the practice and life of Korean nuns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Buddhist traditions, through a presentation titled “Hanmaum Science: Daehaeng’s Perspective on Science”. It is defined as the circular triangle principle of ‘origin of life ↔ bringing up of mind ↔ manifestation of mind (phenomenalization)’. However, Seon Master Daehaeng did not directly mention this. In contrast, the newly discovered ‘Juingong Principle’ is based on her direct teachings.

While the components of the Hanmaum Principle are the origin of life, bringing up of mind, and manifestation of mind (phenomenalization), the Juingong Principle comprises life, thought, and physical body, hence they differ. Upon examining their relationship, four scenarios emerge:

First, treating both principles as synonymous risks oversimplification by generalizing the concrete concept of the physical body into the abstract concept of manifestation of mind

---



---

(phenomenalization).

Second, treating them as distinct principles creates potential confusion, since Hanmaum and Juingong convey the same meaning but are represented differently. An objective perspective reveals difficulties in assuming a deterministic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inging up of the mind and its manifestation, making universal acceptance challenging.

Third, merging the manifestation (phenomenalization) with the three components of the Juingong Principle creates a four-element structure. In this scenario, outcomes that manifest from the physical body can be seen in relation to the manifestation of the mind, implying a causal relationship.

Fourth, combining the three elements of Juingong with the Non-dual Dharma of the Three Pure Realizations – namely, enlightenment, non-duality, and manifestation – results in a six-element framework. This captures the entire structure of Daehaeng’s teachings, from practice and enlightenment to final manifestation. However, elevating manifestation of mind (phenomenalization) into post-enlightenment makes it challenging to universally address prior manifestations.

Hence, while utilizing the Juingong Principle derived from Daehaeng’s direct teachings, it is proposed to separately adopt the concept of ‘Principle + Phenomenalization’. This concept

---

---

integrates the three elements of Juingong with the manifestation of mind, within the teachings of Seon Master Daehaeng.

Juingong serves as the foundation of ‘the Science based on Mind’, thus its principle is directly applicable. Seon Master Daehaeng asserts that this science is a science of everyday life; entrusting everything to Juingong and bringing up a single thought results in work manifesting. Here, a single thought refers to the bringing up of the mind, while work as a manifestation signifies outcomes through physical action of the body.

In conclusion, Daehaeng’s teachings, based on the Juingong Principle, present a philosophical system where the religiosity of Seon Buddhism meets the empirical nature of the Science based on Mind. Seon Buddhism emphasizes the practice aspect, whereas the science based on mind accentuates the everyday life, highlighting the non-duality between practice and everyday life.

- Keywords: Juingong Principle, Hanmaum Principle, physical body, manifestation of mind (phenomenalization), Gwan Practice, Non-dual Dharma of the Three Pure Realizations, Science based on Mind

## I. 들어가는 말

대행사상 원리의 객관성과 보편성 확보는 그 정체성과 직결된다. 관법 수행의 근거 및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행사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심성과학의 근거로서 그 연구 범위와 방법의 기준이 된다.

대행사상에서 원리와 방편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것은 그 사상적 체계의 완결성과 함께 수행과 깨달음의 진정성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다.

이 원리는 대행사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심성과학의 기반이자 핵심으로서 그 방법론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향후 심성과학의 연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성과학은 과학의 전체적 관점이며,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 대행사상 원리에 대하여 『한마음요전』 ‘원리편’에서는 ‘마음내기 이전 · 마음내기 · 육신 등이 삼합이 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하고,<sup>1)</sup> 학문적으로는 2004년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 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에서 ‘한마음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생명의 근원 ↔ 마음냄 ↔ 마음나툼(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 원리’라고 정의하고

---

1) 『한마음요전』 (안양: 한마음선원, 2016), p.385

있다.<sup>2)</sup> 일찍이 ‘한마음 원리’를 연구하여 정의한 것은 매우 선구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원리는 한마음과학원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원리에서 각각 앞의 두 요소는 서로 동일하지만, ‘육신’과 ‘마음 나뉘(현상화)’에서 변화된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행선사의 친설을 중심으로 두 원리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주인공 원리를 근거로 심성과학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1. 주인공 원리

주인공 원리는 삼함에 근거한다. 삼함은 『한마음요전』 제2장 ‘원리 편’, ‘6.삼함-생명의 실상’ 첫 줄에 “영원한 생명과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둥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sup>3)</sup>고 한다. 여기서 삼함의 세 요소인 영원한 생명, 마음, 육신 등은 대행선사의 여러 법문에서 다양한 용

---

2) 김용환 외 7명,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 (서울: 한마음과학원, 2004), p.5 ([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

3) 『한마음요전』 (안양: 한마음선원, 2016), p.384

어로 변조되어 나타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일관성이 있다. 김호귀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생멸하는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동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sup>4)</sup>는 것을 ‘삼각 원형의 원리’라고 한다. 그는 위 세 요소와 유사한 개념들을 총칭하여 ‘삼합의 원리’라 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삼합의 원리는 “한마음이 근원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현상적인 것으로 출현”<sup>5)</sup>한 것이므로 수증불이修證不二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합의 원리라는 용어는 대행선사의 친설이 아니며, 특히, 삼합은 세 요소를 합친다는 개념이므로 삼합만으로는 원리라고 할 수 없고, 원리가 되려면 이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대행선사의 친설에 의하면, 삼합과 관련된 원리는 ‘주인공의 원리’<sup>6)</sup>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sup>7)</sup> 즉, 주인공 원리는 ‘생명 · 생각 · 육신 등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김호귀,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한마음연구』 제2집 (안양: 대행선연구원, 2019), p.99

5) 김호귀,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한마음연구』 제2집 (안양: 대행선연구원, 2019), pp.99-100

6) ‘주인공의 원리’를 본 연구에서는 단일명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인공 원리’로 변경하기로 한다.

7)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안양: 한마음선원 출판부, 2011), p.136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인공 원리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행선사의 법문집인 『허공을 걷는 길』 전집 중 대부분(12권)에도 겨우 한 번 등장할 정도로 그 사용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주인공’의 뜻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인공’을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2. 한마음 원리

한마음 원리는 그간 한마음과학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마음과학이란 공법의 활용을 말하며 한마음 원리와 그 원리의 체득 및 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8)</sup>고 하므로, 이를 통해 한마음과학의 정의에 있어 한마음 원리의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한마음 원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 용어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서 대행선사가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다만, 신도의

---

8) 김용환 외 7명, 「한마음과학: 대형스님의 과학관」 (안양: 한마음선원, 2004), p.7  
([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

9) 『허공을 걷는 길』 대부분(12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 즉 답선법회 등을 통해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전히 2004년도 논문에서는 한마음 원리의 개념을 주인공 원리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질문에서 한마음 원리가 언급된 부분이 한 군데 있을 뿐이다.<sup>10)</sup> 둘째, 대행선사의 설법에서 ‘원리’란 용어 사용에 있어 ‘상대성 원리’와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의 사용 빈도가 높은 데, 후자는 주인공 원리와 같은 맥락이다.<sup>11)</sup> 셋째, 대행선사는 주인공 원리를 직접 거론한 적이 있으며 주인공은 한마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주인공 원리’는 곧 ‘한마음 원리’로 읽을 수 있으나, 두 원리의 동일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한마음 원리에서 삼합의 ‘생명·마음·몸’이 ‘생명의 근원 ↔ 마음냄 ↔ 마음나툼(현상화)’으로 변화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마음 원리의 정의를 위해서 인용 근거로 삼은 2개 문장에서 ①‘생명수의 근원·성품·만법’<sup>12)</sup> ②‘생명·마음·모습’<sup>13)</sup> 등이 나타나고, 이 중 만법과 모습이 ③‘마음나툼(현상화)’<sup>14)</sup>으로 변화한 것이다.

1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2011) p.489. “신도2(남) 지금 제가 말씀 듣자 하니까 큰스님께서요, 알래스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마음의 원리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11)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2』(안양: 한마음선원, 2001), p.890

1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1999), pp.159-160. “자기 성품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이전 바로 그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해서 성품이 만법으로 쓰이게 돼 있어.”

13)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2001), p.404. “여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일체 만물만생의 그 생명과 마음과 모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 중심 불바퀴나 똑같습니다.”

14) 「김용환 외 7명,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안양: 한마음과학원, 2004), pp.4-5. “이를 생명체에 적용하면 생명-마음-몸이 되는데 대행스님은, “생명의 근

그러나 ①에서 “성품이 만법으로 쓰이게 돼 있어”라는 문장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성품이 만법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육신의 작용을 거쳐야 하므로 만법은 성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움직임의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②에서 ‘모습’은 문맥상 반어법으로 사용되는 ‘몸뚱이’<sup>15)</sup>로 이어지므로 ‘육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자대로 뜻으로만 볼 때는 만법과 모습이 마음나툼(현상화)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설법의 문맥상 의미는 모두 ‘육신’ 또는 ‘육신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두 원리의 동이(同異)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 등이 대행선사의 친설 또는 대행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합성은 두 원리 간에 동이(同異)의 관점에서 네 가지 경우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두 원리를 동일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주인공과 한마음을 같은 뜻으로

---

원과 마음(성품)과 온갖 현상(모습)이 삼각원형의 형태로 둘 아니게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면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F3683104B9A5DCA97CBB5A204F4B236C?contents_item_id=67))

15)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2001), p.404. “그러니까 그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전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원소 자체의 근본에서 생긴 것이 개별적인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할 경우 혼란을 초래한다. ②육신은 구상적 표현이고, 마음나툼(현상화)은 추상적 표현이므로, 육신을 마음나툼(현상화)으로 전환시킬 경우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두 원리를 다른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주인공 원리는 대행선사의 체험 결과에 따른 친설이므로 그 실증성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대행사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마음 원리는 대행선사의 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증성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인공 원리에서 마음내기와 육신의 관계는 주관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마음 원리의 마음내기와 마음나툼(현상화)은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필연적인 인과관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리 성립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주인공 원리에 한마음 원리의 마음나툼(현상화)을 합친다면, [(마음내기이전 · 마음내기 · 육신)+마음나툼(현상화)]의 4요소가 될 것이고, 이는 원리와 현상 간의 관계로서 주인공 원리의 실증성으로 인해 한마음 원리 및 한마음과학의 실증성도 확보할 수 있다. 주인공 원리에서 육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마음나툼 또는 현상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인공 원리와 삼정지각 불이법을 합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마음내기 이전 · 마음내기 · 육신)+(견성 · 불이 · 나툼)] 등 총 6요소

로 이루어진 원리가 된다. 이것은 대행사상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원리로 삼기에 명분은 충분하지만, 나뉠이 궁극적인 경지로 설정됨에 따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주인공 원리를 사용하되 마음나뉠(현상화)을 주인공 원리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

#### 1. 심성과학의 특징

대행사상에서 과학적 개념은 ‘심성’이 핵심이고 그것을 심성과학이라고 한다.<sup>16)</sup> 이것은 물질과학의 개념과 차별화되므로 심성과학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심성과학은 한마음에서 나온다.<sup>17)</sup> 움직이지 않는 마음내기 이

---

16)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한마음과학은 심성과학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한마음과학은 학문적 입장에서 정의한 것이고, 심성과학은 대행선사의 친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심성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논자 주)

17)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안양: 한마음선원, 2005), p.761.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 떠나서는 없습니다.”

전에서 힘을 배출시키고, 마음내기로 입력할 때 육신의 움직임으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것이 심성과학이므로 주인공 원리가 적용된다.<sup>18)</sup> 따라서 심성과학의 입장에서는 원리적으로 볼 때 마음나툼(현상화)에 이르기 전에 육신의 작용이 먼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심성과학은 ‘무無의 과학’이다. 그러므로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알아야 한다.<sup>19)</sup> 모든 것이 심성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그 근원에 입력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끔 굴린다.<sup>20)</sup> 따라서 유·무 과학 전체로서 심성과학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그 근원인 자성불을 알아야 한다. 이 유무의 과학과 같은 맥락에서 유심과학·무심과학, 유한계·무한계 등에 대하여도 많은 법문이 남아있다.

셋째, 심성과학은 생활과학이다. 일체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 심성과학이므로 심성과학과 마음공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sup>21)</sup> 따라서 생활과학은 생활 속에서 마음이 진화하고 창조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과학이라는 입장이다.<sup>22)</sup> 즉 일체를 놓고 한생각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sup>23)</sup>

---

18)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2001), p.603

19)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안양: 한마음선원, 2005), p.1530

2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안양: 한마음선원, 2011), pp.1774-1775

21)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안양: 한마음선원, 1999), p.15

22)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p.317

23)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p.604

넷째, 심성과학은 오공五共의 생활이다.<sup>24)</sup> 오공의 생활은 전체가 같이 작용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심성과학은 근원으로서 주인공, 수행으로서 마음공부 그리고 오공 및 생활 등 대행선사의 전반적인 사상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심성과학의 바탕이 한마음이라면 한마음은 주인공이고 그 원리는 주인공 원리이므로 심성과학의 원리도 주인공 원리에 따른다.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대행선사의 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성과학은 한마음에서 나오므로 주인공 원리는 심성과학의 기반이고 핵심이다.<sup>25)</sup> 따라서 심성과학의 입장에서는 마음나툼(현상화)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주인공 원리에 따르는 육신의 작용과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sup>26)</sup>

둘째,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은 자동과학이다. 대행선사에 따르면,

---

24)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pp.23-24

25)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 p.1063

26)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p.604

생각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실행<sup>27)</sup>이 되므로 자유인 또는 관습의 노예 여부는 한생각에 달렸다<sup>28)</sup>고 한다.<sup>29)</sup> 한생각은 생활 속에 있으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렇게 입력이 된 것은 다시 현실로 출력되므로 자동과학이며, 이는 삶 속에서 순환적 구조를 이루므로 삼각원형적 원리이자 동시에 주인공 원리를 의미한다.<sup>30)</sup>

셋째, 심성과학의 전달방식은 통신으로 비유한다. 마음내기 이전에서 마음내기를 하면 사대 육신까지 통신으로 전달되어 알고 행하게 되는 것은 심성과학이자 동시에 주인공 원리에 의한 작용이다. 마음내기 이전과 육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마음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생활은 1차적으로 마음내기에서 조절하고 2차적으로는 육신의 작용에서 조절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통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통신이 되므로 오공五共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넷째, 심성과학을 온전히 간파하려면 삼정지각 불이법을 통해야 한

---

27)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안양: 한마음선원, 1999), p.256

28)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안양: 한마음선원, 1999), p.435

29)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안양: 한마음선원, 2011), p.1653.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심성의학도 될 수 있고 심성과학도 될 수 있고 심성천체물리학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3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안양: 한마음선원, 2011), p.1689. “사람이 머리가 깨이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온다는 사실도 아셔야죠. 이거는 심성과학이면서 심성천체물리학도 되고 심성의학도 됩니다.”

다. 이 불이법에 견성·불이·나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인공의 증명(견성)과 이에 따른 수행이 필요하며,<sup>31)</sup> 이때 증명은 주인공 원리를 통해서 주인공을 깨닫는 것이다.

이상에서 심성과학은 한마음 또는 주인공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동 입력되고, 입력된 것은 다시 현실로 출력되므로 자동과학이다. 따라서 심성과학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삼정지각 불이법을 통해야 하므로 주인공을 증명하고 그 원리를 간파하는 마음공부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대행사상의 원리관은 관법 수행의 근거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활용해 오던 한마음 원리와 대행선사의 친설을 근거로 새롭게 제시하는 주인공 원리를 비교한 결과, 주인공 원리의 3요소는 생명·생각·육신이고, 한마음 원리의 3요소는 생명의 근원·마음냄·마음나툼(현상화)인 것으로 볼 때, 육신과 마음나툼(현상화)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이 두 원리의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행선사의 친설을

---

31)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안양: 한마음선원, 1999), p.34

중심으로 서로 비교 분석하면 4가지 경우가 있다.

두 원리를 동일한 뜻으로 간주할 때는 육신을 마음나툼(현상화)으로 일반화시킴에 따른 일반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원리로 간주할 경우에는 한마음 원리의 실증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마음 내기와 마음나툼(현상화)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성의 부족으로 보편적인 원리 성립이 어렵다. 이 두 가지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인공 원리에 마음나툼(현상화)을 합쳐서 4가지 요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즉, [주인공 원리+마음나툼(현상화)=마음내기 이전+마음내기+육신+마음나툼(현상화)]과 같다. 이럴 경우 육신의 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나툼(현상화)은 서로 인과관계를 갖게 되므로 주인공 원리의 실증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인공 원리와 삼정지각 불이법을 합쳐서 6가지 요소로 만드는 것이다. 즉, [주인공 원리+삼정지각 불이법=(마음내기 이전+마음내기+육신)+(견성+불이+나툼)]과 같다. 이것은 마음나툼(현상화)을 삼정지각 불이법의 나툼과 연계한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대행선사의 본래 취지대로 수행과 견성 및 그 이후 최종 나툼의 단계까지 대행사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리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마음나툼(현상화)을 견성 후 최종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일반성 또는 보편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요약하면, 대행사상의 원리는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위해 대행선사의 친설에 의한 주인공 원리를 사용하되, 이와 별도로 ‘원리+현상화’ 개념

의 일환으로 주인공 원리의 3요소에 마음나뭇(현상화)을 합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주인공 원리는 대행사상의 또 다른 한 축인 심성과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심성과학의 근원은 주인공이고, 심성과학을 온전히 간파하기 위해서는 삼정지각 불이법을 알아야 하므로 심성과학은 견성(증명) 및 관법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행선사는 심성과학이 오공의 생활이자 생활과학이고, 생활과학은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한생각 할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한생각은 마음내는 것이고, 작품은 육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마음내기와 육신이 포함된 주인공 원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대행사상은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선불교의 종교성과 심성과학의 실증성이 불이적 관계로 만나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으며, 선불교의 수행적 성격과 심성과학의 생활적 성격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행과 생활 간 불이성을 강조한다.



## ◆ 참고문헌

1.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6)
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 (재)한마음선원 (1999)
3.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재)한마음선원 (1999)
4.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재)한마음선원 (1999)
5.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재)한마음선원 (2001)
6.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2』, (재)한마음선원 (2001)
7.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 (재)한마음선원 (2005)
8.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 (재)한마음선원 (2005)
9.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재)한마음선원 (2011)
1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재)한마음선원 (2011)
11. 김호귀,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한마음연구』 제2집, 대행선연구원 (2019)
12. 김용환 외 7명, 「한마음과학: 대행선사의 과학관」, 한마음과학원 (2004)  
[[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70B466C5B100284594ABEB96681D3354?contents\\_item\\_id=67](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70B466C5B100284594ABEB96681D3354?contents_item_id=67)  
(2023.08.18.)]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1. 주인공 원리
2. 한마음 원리
3. 두 원리의 동이(同異)

### III.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1. 심성과학의 특징
2.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상관성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 대행사상에서 원리의 객관성과 보편성 확보 ⇒ **정체성과 직결**
  - ☞ 관법 수행의 근거 및 방향성 & 심성과학의 근거, 연구 범위와 방법의 기준
  - 원리와 방편 정립의 여건 충분 ⇒ 전체 구조 속에서 원리의 위치 파악을 통해 사상적 체계의 완결성 및 수행과 깨달음의 진정성과 효율성을 확인
- 원리는 **심성과학의 기반이자 핵심, 방법론의 기준** ⇒ 심성과학 연구에 영향
  - 심성과학은 과학의 전체적 관점으로서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의 통합적 개념
- 대행사상에서 원리는 친설을 기록한 **문헌**과 학문적 연구를 통한 **학설적** 입장 존재
  - **문헌적 입장** : ①『한마음 요전』 ⇒ “내 몸과 마음내는 것과 마음내기 이전이 삼합이 되어 공전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 간다.” (‘원리편’ p.385) ☞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감**
  - ②『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 p.1368) ☞ **주인공의 원리**

## I. 들어가는 말

- 학문적 입장 : 한마음 원리, 삼각원형의 원리, 삼합의 원리 등

① **한마음 원리** : “생명의 근원 ↔ 마음냄 ↔ 마음나툼(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원리”

⇒ 2004년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김용환외 7) ⇨ 선구적인 작업

② **삼각 원형의 원리** : “영원한 생명과 마음(생멸하는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등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 ⇒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김호귀, 2019), p.99

※ “자기가 바로 마음을 내고 이 생명과 육신이 움직거리고 돌아가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주의 섭리도 다른 혹성도...모든 게 삼각원형을 이루고...” (정기법회1, p.133)

③ **삼합의 원리** : “이들 삼합의 원리는 어디까지가 수행이고 어디까지가 깨달음인지 수증에 대한 분별이 따로 없다.” ⇒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김호귀, 2019), p.100

○ 본 연구는 대행사상의 원리에 대하여 대행선사의 친설에 따른 **정합성** 여부 검토 및 원리와 **심성과학** 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 ⇒ 대행사상의 **정체성 정립**의 실마리

## II.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1. 주인공 원리 ⇒ 대행선사의 친설, 여러가지 형태의 삼합에 적용 가능

○ 삼합은 마음내기 이전, 마음내기, 육신 등 세 요소가 합쳐진 것을 의미

⇨ “내 몸과 마음내는 것과 마음내기 이전이 삼합이 되어 공전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한마음요전』제2장 '원리편', p.385)

※ '삼합의 원리'는 대행선사의 친설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음

○ **주인공 원리** : 생명·생각·육신 등의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것, 주인공 원리는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삼합과 주인공 원리는 구분 필요**

⇨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p.1368) ⇒ 『허공을 걷는 길』에서 1회 사용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주인공의 원리'라는 용어는 전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 ☞ 용어에 대한 인식 부재 또는 '주인공'을 주인공 원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가능

### 2. 한마음 원리

- 한마음 과학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 ⇒ '한마음 원리'의 중요성 가늠
  - ☞ “한마음과학이란 공법의 활용을 말하며 한마음 원리와 그 원리의 체득 및 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 p.7)
- 한마음 원리의 정합성 검토
  - 첫째, 대행선사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신도의 질문에서 1회 나타남
    - ☞ “신도2(남) ... 큰스님께서요, 알래스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마음의 원리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p.489)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둘째, 대행선사의 설법에서 '원리'란 용어는 '상대성 원리'와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가 사용 빈도가 높는데, 후자는 주인공의 원리와 같은 맥락

※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 바로, 차이 없는 도리인 둥근 원리입니다. ... 좀 더 생각해서, ... 앓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싹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2』, p.890)

⇒ '자기 뿌리'는 마음내기 이전이고, '생각'은 마음내는 것, '자기 싹'은 육신으로서 자기를 의미하므로 삼합이며,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 곧 둥근 원리는 '주인공의 원리'를 의미

- 셋째, 주인공의 원리와 한마음의 원리에서 주인공과 한마음은 용어상 같은 의미지만,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각 의미상 내용은 서로 불일치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넷째, 삼합의 '생명·마음·몸'이 한마음 원리의 '생명의 근원↔마음냄↔마음나툼(현상화)'으로 변화 과정을 통해 주인공 원리와 관계 파악 가능
- 한마음 원리의 근거로 인용한 2개 문장에서 ①'생명수의 근원·성품·만법' ②'생명·마음·모습' 등이 나타나고, 이 중 **만법, 모습이** ③'**마음나툼(현상화)**'으로 변화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 pp.159-160,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p.404)
- ☞ ①에서 "성품이 만법으로 쓰이게 돼 있어"에서 **만법은** 성품이 작용하는 **육신**, ②에서 '**모습**'은 문맥상 '**몸뚱이**'로 이어지므로 '**육신**'으로 볼 수 있음
- ※ "그러니까 그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전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원소 자체의 근본에서 생긴 것이지 개별적인 내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p.404)
- 따라서, 문자대로 뜻은 만법과 모습은 마음나툼(현상화)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설법의 **문맥상** 의미는 모두 '**육신**'을 가리킴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① "자기 성품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이전** 바로 그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해서 **성품이 만법**으로 쓰이게 돼 있어.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가 탐처럼 들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탐돌이를 한다고 하는 원인도 우리가 지금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기 때문에 탐을 비유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 pp.159-160)
- ② "여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일체 만물만생의 그 **생명**과 **마음**과 **모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 중심 불바퀴나 똑같습니다.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생산을 해내는 그 자체를 보고 불바퀴라고 합니다.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이 허공에도 소용돌이가 있듯이, 마음들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긴 거고 근본이 생긴 거고 불바퀴가 생긴 겁니다. 태양이 생기고 말입니다. 별성들이 같이 돌아가는 이 자체도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아니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바로 그 **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전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원소 자체의 근본에서 생긴 것이지 개별적인 내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p.404)
- ③ "생명체에 적용하면 **생명-마음-몸**이 되는데 대행스님은, "**생명의 근원과 마음(성품)과 온갖 현상(모습)**이 삼각원형의 형태로 둘 아니게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면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들어쉬고 내쉬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마음냄 ↔마음나툼(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원리를 '**한마음 원리**'라고 한다."(앞의 논문, pp.4-5)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3. 두 원리의 동이점

- 두 원리 간 동이(同異)의 관점에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검토
  - 첫째, 두 원리를 동일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 한마음과 주인공은 같은 뜻인데 정의가 서로 다르면 혼란 초래
    - 육신은 구상적 표현, 마음나툼(현상화)는 추상적 표현이므로, 육신을 마음나툼(현상화)로 전환시킬 경우 일반화 오류 우려
  - 둘째, 두 원리를 다른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 주인공 원리는 대행사상에서 전반적으로 활용 ⇒ 체험 결과 실증성 확보
    - 한마음 원리는 한마음과학 분야와 연계 활용 ⇒ 실증성 불확정 수용 필요
    - 마음내기와 육신은 주관적인 관계로서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될 수 있으나, 마음내기와 마음나툼(현상화)은 객관적인 입장이 포함되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발생 우려 ⇒ 보편적인 원리 성립에 의문

## Ⅱ.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

- 셋째, 앞의 두 가지 경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를 합칠 경우 ⇒ 실증성 확보 가능
  - [근원·마음냄·육신]+마음나툼(현상화) ⇒ 원리+현상: 인과관계 성립 : 4요소
- 넷째, 주인공 원리와 삼정지각 불이법을 합칠 경우
  - (마음내기 이전 · 마음내기 · 육신) + (견성 · 불이 · 나툼) ⇒ 6요소
  - ☞ 대행사상의 포괄적인 원리로서 가능, 단 나툼의 궁극성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활용에 지장 초래
- 소결 : 두 원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보면 한마음과 주인공이 같은 뜻인데 서로 다른 개념이 되어 버리는 혼란 발생.
  - 주인공 원리로 용어 통일
  - '원리 + 현상화' 즉, '주인공 원리+마음나툼(현상화)'의 개념으로 별도로 활용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1. 심성과학의 특징

○ 대행사상에서 과학적 개념은 '심성'이 핵심 ⇒ 물질과학의 개념과 차별

☞ 심성과학의 특징 검토 ⇒ 정체성 정립에 필요한 사전 작업

○ 첫째, 심성과학은 한마음에서 나옴 ⇒ 주인공 원리 적용

- 부동의 **마음내기 이전**에서 힘을 배출, **마음내기**로 입력, **육신**의 움직임으로 현실화

☞ 심성과학의 입장에서는 마음나뚠(현상화)에 이르기 전에 우선 **육신의 작용 필요**

※ “움직거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시키기만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모든 분야가 배출됩니다.”(『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 p.603),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국외지원법회3, p.1775), “대너공 해서 사대(四大)로 되면 작용을 해 줍니다. …… 내 속에서 내 생명체들이 작용을 안해준다면 그거는 어렵습니다.”(『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 p.602)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둘째, 심성과학은 '**무無의 과학**' ⇒ 무의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되게끔 굴림

-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알아야 함 ⇒ 모든 것이 심성의 근원에 연결

※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 할 겁니다. 무(無)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 p.1530)

- **유·무의 세계**를 같이 해서 굴린다는 뜻을 알고, **안으로 잡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심성과학이며, 이 도리가 생활이고 참선 ⇒ 생활과 수행이 심성과학을 통해 융합

☞ 심성과학을 알고 쓴다면, **학문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음**

※ “무(無)의 세계 · 유(有)의 세계를 같이 해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깥으로만 찾고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뜻을 알면은 **안으로 잡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심성 과학입니다. 이 도리는 **생활**이자 **참선**이고, **참선**이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심성(心性)**을 빼놓고는 과학을 이룰 수가 없고, 그때는 **학(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정기법회2, p.224)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유무의 과학과 같은 맥락에서 유심과학·무심과학, 유한계·무한계 등이 있음

#### ○ 셋째, 심성과학은 생활과학

- 일체를 놓고 생활할 때 심성과학 ⇒ 심성과학, 생활, 수행은 서로 간 불이(不二)

※ “놓고 가는 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편해지고 모든 것이 심성과학적으로, 생활이 심성과학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p.15.)

- 생활과학은 생활 속에서 마음이 진화하고 창조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과학이라는 입장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 p.317)

- 생활과학은 주인공 원리를 반영 ⇒ 마음내기와 육신의 작용을 통해 현실화

☞ “우리가 이 불법을 배우는 것은 한생각을 해서 작품이 바깥으로 나와야만이 생활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p.604.)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 넷째, 심성과학은 오공五共의 생활

- 오공의 생활은 전체가 같이 작용하면서 돌아간다는 것

※ “그러니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있는 우리 이 생활이 심성과학이 아닙니까?”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pp.23-24)

○ 소결 : 심성과학은 근원으로서 주인공, 수행으로서 마음공부, 생활 및 오공 등 대행선사의 전반적인 사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2.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상관성

○ 첫째, 주인공 원리는 심성과학의 기반 · 핵심 (①심성과학은 한마음에서 나옴)

※ “바로 불성의 씨는 큰 에너지와 같고 그 마음은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다스림입니다. 여러 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철학일 수도 있고, ... 천체물리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 p.1063)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마음내기 이전의 간파를 통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수행과 증명이 필요

※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 내기 이전을 먼저 간파해야 마음을 내서 과학이라고 발전을 할 수 있고, 일체 만법에 모든 걸 분야에 맞게 할 수 있죠.”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p.34.)

- 마음나툼(현상화) 이전에 주인공 원리에 따라 육신의 작용과 결과가 포함

※ “사람이 머리로만 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이 전신으로 하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그 권처(權處)에서 바로 두뇌로 올라가는 게 누진입니다. 누진으로써 몸뚱이 사대(四大)에 하달을 해서 바깥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성과학! 종합 심성과학입니다.”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p.272)

○ 둘째,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은 자동과학(②),③ 심성과학은 무의 과학, 생활과학)  
- 자유인과 관습의 노예 여부는 한생각에 좌우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p.435)

※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괜히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자동과학은 입력과 출력이 자동 ⇒ 생각해서 놓으면 자동 실행

• 한생각은 생활 속에 있고, 삶 자체가 자동 입력되고 또 현실로 출력 ⇒ 주인공 원리

☞ “사람이 머리가 깨이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온다는 사실도 아셔야죠. 이거는 심성과학이면서 심성천체물리학도 되고 심성의학도 됩니다.”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p.1689.)

○ 셋째, 심성과학의 전달방식은 통신으로 비유 (④ 심성과학은 오공五共의 생활)

- 마음내기 이전에서 사대 육신까지 마음내기를 하면 통신으로 전달하여 알고 행하는 것은 심성과학이자 주인공 원리에 의한 작용

☞ 마음내기(또는 맡겨놓기)를 중심으로 마음내기 이전과 육신이 하나로 연결

- 생활 속에서 1차적으로 마음내기에서 조절, 2차적으로 육신의 작용에서 조절 가능

### Ⅲ.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

※ 즉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에서, 대뇌, 소뇌,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하달이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 몸뚱이 하나 사는 것이 한 세계가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스리는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놔야** 거기에서 책정을 내려 가지고 한순간에 **사대로 통신**이 돼서, 어느 공장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통신이 돼요.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 p.1555)

○ **넷째**, 심성과학을 온전히 간파하는 길은 **삼정지각 불이법을** 통해야 함

- 심성과학은 견성, 불이, 나툼 등을 간파 하는 것 ⇒ 주인공 원리를 통한 **증명(견성)과 수행의 필요성** 역설 ⇨ 주인공 원리와 수행 및 심성과학의 밀접한 관계

※ “이 과학은 과학대로 **나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가지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아야 만이 이것은 100%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물질로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소폭탄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소폭탄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p.34)

### Ⅳ. 나가는 말

○ 원리는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 근거와 목표에 부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원리 비교 결과**, 주인공 원리의 3요소는 생명, 생각, 육신, 한마음 원리의 3요소는 생명의 근원, 마음냄, 마음나툼(현상화) ⇒ 마음나툼(현상화)은 육신의 일반화 오류

- **마음내기와 육신** ⇒ 주관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성립

- **마음내기와 마음나툼(현상화)** ⇒ 마음나툼(현상화)은 객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발생 우려

○ 두 원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경우**, 한마음과 주인공이 같은 뜻인데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면 **혼란 발생 우려**

⇨ ‘주인공 원리’로 용어를 통일하고, ‘원리 + 현상화’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인공 원리+마음나툼(현상화)’의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활용

## IV. 나가는 말

- 주인공 원리는 심성과학과 불가분의 관계
  - 심성과학은 심성의 근원인 한마음에서 나오므로 주인공 원리는 심성과학의 기반, 핵심 ⇒ 심성과학의 온전히 간파하기 위해 삼정지각 불이법을 알아야 함
- 심성과학은 **생활과학**이고, 생활과학은 생활 속에서 마음의 진화 그 자체가 과학 ⇒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한생각할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 생활과학
- **결론적으로**, 대행사상은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심성과학 · 생활 · 수행이 모두 서로 불이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①**선불교의 종교성과 심성과학의 실증성이 불이적 관계로** 만나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고, ②**선불교의 수행적 성격과 심성과학의 생활적 성격이 서로 불이적 관계로서** 실천적인 생활선의 정수(精髓)를 보여줌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New Superconductor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Hanmaum Science

강 황 진 (한마음과학원)

Whangjin Kang (Hanmaum Science Institute)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미래의 에너지나 환경문제 해결에 해법을 줄 수 있는 고온초전도체의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한국 등에서 관심을 끈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나, 초전도성에 대한 재현성과 검증과정에서 진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전 세계 인류가 하루라도 빨리 실용할 수 있는 완전한 고온초전도체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행선사는 “과학이란 어차피 반쪽만을 다루는 것이니 50%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반쪽을 채우려면 심성과학(한마음과학)을 계발하여야 한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결합되어 일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완전한 연구를 해낼 수 없다.”고 한마음과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 공학이나 의학 분야 등에서 꼭 해결해야 할 난제에 직접 적용하여 연구를 해보라고 한마음과학원 회원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독려한 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래과학인 새로운 고온초전도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한마음 과학적 관점에서 시도하여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마음과학적 연구방법의 체험을 통해 이 연구기법을 체계화시켜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용 가능한 고온초전도체”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삼각원형의 순환원리를 적용하여 한마음과학의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근본자리에 맡기고 마음을 낸 것이 현상화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과학적 용어로 재해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실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물성을 측정하는 단계까지 진행시켜 볼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목표조성을  $Pb_3Mo_6S_8$ 로 하기 위하여 고체반응법으로 합성하고  $1000^{\circ}C$ 에서 열처리를 하여 XRD로 정량적 상분석을 했을 때,  $Pb_3Mo_6S_8$ 의 단일 상은 생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000^{\circ}C$ 에서 6시간 열처리한 경우는 3시간 열처리한 경우에 비해서  $Pb_{0.92}Mo_6S_{7.5}$ 상이 약간 감소했고, 저온상인 Pb가 20.4%에서 11.4%로 감소했으며, 고온상인  $MoS_2$ 와  $Mo_2S_3$ 등은 16.9%에서 3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2) 10외르스테드 (Oe)의 자기장을 인가하여 자기적성질 측정장치 (MPMS)로 초전도 임계온도( $T_c$ )를 측정한 결과는  $1000^{\circ}C$ 에서 6시간 열처리한 경우에서 15K, 3시간 열처리한 경우에서 12K를 나타내었다. 완전한 3원계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열처리한 경우의 결과는 Chevrel상 물질에서 보고된 임계온도의 최고치인 15K와 대등한 값을 나타내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한마음 과학적 연구기법은 과학적 난제의 해결

---

---

이나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주제어: 한마음과학, 초전도현상, 임계온도, 고온초전도체, 대행선사, 삼각원형적 순환원리, 관법수행, 심성통신
- 

---

• ABSTRACT •

---

Scientists of the world are working hard on the study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that can provide solutions to future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cently, interesting research results have been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aising expectations, bu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authenticity in the process of reproducibility and verification of superconductivit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ward to the creation of a complete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that can be put to practical use as soon as possible.

Seon Master Daehaeng said, “Science only deals with half of the phenomena anyway, so it doesn’t exceed 50%. Therefore, if you want to fill the other half, you need to develop Hanmaum Science. We can not complete research without the combination of the subconscious and the present conscious.” She emphasized

---



---

the importance of Hanmaum Science.

Furthermore she personally guided and encouraged members of Hanmaum Science Institute to directly apply this to difficult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fields such as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Based on the teaching of Seon Master Daehae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materials by attempting research on new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a future science that must be 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Hanmaum Science.

In this study, exploratory research on “practical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is conducted. Here are some of the findings.

1. The circulation principle of a triangular circle was applied to conduct Hanmaum scientific research. In the process, I was able to perceive that what I put my mind to the root of my mind was phenomenalized. Also, what I learned here, I was reinterpreted in scientific terms through continuous practice. And based on this, it was advanced to the stage of conducting actual scientific experiments and measuring physical properties .

2. Through this proces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results of measuring  $T_c$  with a magnetic property measuring

---

---

system by applying 10 Oe showed 15K in the case of 6hrs of heat treatment at 1000°C and 12K in the case of 3 hrs of heat treatment.

3.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think that Hanmaum Scientific research method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in research fields that require solving challenging problems or ask for high creativity.

- Keywords: Hanmaum Science, Superconductivity, Critical Temperatur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 Seon Master Daehaeng, The Circulation Principle of a Triangular Circle, Kwan Practice, Communication through mind
-

## 〈연구 배경〉

초전도현상[1]이란 특정 임계온도 하에서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1911년에 처음 발견<sup>1)</sup>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용화는 액체헬륨온도(4.2K, -269°C) 하에서 초전도현상을 나타내는 니오브 타이타늄(NbTi), 니오븀3 주석 (Nb<sub>3</sub>Sn) 등 전통적 극저온 초전도체 몇 종류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학자들은 미래의 에너지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양자컴퓨터 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액체질소의 액화온도(77K, -196°C) 이상의 임계온도를 갖는 물질로서 우수한 임계 전류밀도와 임계자장 및 가공성을 갖는 고온초전도체의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구진[2]의 초고압 조건 하에서 상온초전도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sup>2)</sup>되거나, 한국 연구진[3]의 상온 상압 하에서의 초전도 물질에 대한 가능성이 발표<sup>3)</sup>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초전도성에 대한 재현성과 검증과정에서 진위에 대

- 
- 1) 초전도체의 최초 발견은 1911년 네덜란드 H.K. Onnes에 의해 4.2K 온도 하의 수은에서 이루어졌다.
  - 2) Rochester대학의 Diaz교수팀이 10,000기압하에서 LuH<sub>2</sub>에 질소를 첨가했을 때 290K정도의 임계온도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를 2023년 3월 Nature에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 3) 이석배, 김지훈 등 한국의 과학자가 Pb<sub>9</sub>Cu(PO<sub>4</sub>)<sub>6</sub>O의 물질이 상온, 상압 하에서 초전도현상을 나타낸다고 발표하여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재현을 위한 검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전 세계가 하루라도 빨리 실용할 수 있는 완전한 고온초전도체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 목적〉

대행선사는 “과학이란 어차피 반쪽만을 다루는 것이니 50%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반쪽을 채우려면 마음법, 즉 과학이란 이름을 빌리자면 심성과학(한마음과학)<sup>4)</sup>을 계발하여야 한다. 잠재의식과 현재 의식이 결합되어 일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완전한 연구를 해낼 수 없다.”<sup>5)</sup>고 한마음과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 공학이나 의학 분야 등에서 꼭 해결해야 할 난제에 직접 적용하여 연구를 해 보라고 한마음과학원 회원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독려한 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래과학인 새로운 고온초전도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한마음 과학적 관점에서 시도하여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한마음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체험을 통해 이 연구기법을 체계화시켜 보는 것도 또

---

4) “심성과학”이란 용어는 1997년 한마음과학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불리던 용어였고, 현재는 “한마음과학”으로 통일해서 사용되고 있다.

5) 한마음요전, 원리편, 제9장 과학과 우주, 심성과학, pp.419-424,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방법 및 아이디어 도출〉

2004년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에서 발표[4]된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sup>6)</sup>에서 발표자들은 한마음 원리를 ‘마음내기 이전의 근본’, ‘마음내기’, ‘마음나뚠(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마음과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 삼각원형적 순환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마음내기 이전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과학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고온초전도 물질의 주제를 설정하여 마음을 내고 그것이 나투어지고 현상화되는 과정과 내용을 지켜보고 알아차려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 내기부터 마음 나뚠까지의 과정은 “심성통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가 한마음과학 연구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행선사는 한마음과학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회[5]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다 멈추는 것은 바로 전도가 되느냐 하는 얘기다. 마음을 전달하는 응용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연구

---

6) 김용환, 박종래 등, 2004 국제학술대회,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 Vol.1, p.275

자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연구를 중단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한마음과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성통신과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6].

필자가 고온초전도 물질에 대한 연구를 구상하고 있던 1997년 무렵에 대행선사를 친견한 적이 있다[7]. 대행선사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의 원(圓)상에 있다. 그 중심에 불기둥이 있다. 그 마음자리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그러면,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꿈에서라도 나타나 알려줄 것이다.”<sup>7)</sup>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나의 근본자리를 굳게 믿으면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도 너이고, 새로운 조성을 찾아내는 것도 너잖아,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것이니 너만이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하는 마음을 깊게 내고 관수행<sup>8)</sup>을 하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정진하는 중에 초전도 물질의 조성이라는 “3,6,8” 세 개의 숫자가 또렷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이 물질로 초전도체의 임계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장면을 직관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나타난 임계온도가 아직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아주 높은 온도 수준이라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이를 메모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이러한 내적 체험의 과정과

---

7) 강황진 대행선사 친견 비망록, 1997. 10

8) 한마음요전, 수행편, 제7장, 관하는 도리, pp.531-537

나뿔<sup>9)</sup>의 현상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각원형의 원리로 돌아가는 순환과정 중에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게 되었으며, 이 현상화된 내용을 현실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로 증명해보기로 서원을 세워,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 〈실험 방법〉

삼각원형적 순환의 실천 과정 중 나뿔 단계에서 인지한 고온초전도체의 조성비“3,6,8”에 기초하여 여기에 준하는 X3Y6Z8형태의 3원계 화합물에 대한 가설을 세워 Pb3Mo6S8(납몰리황 화합물)의 조성을 특정하였다.

그리고 이의 검증을 위해 물질의 합성, 생성된 상(相)의 해석,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 초전도 특성 평가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서는 Pb, Mo, S 각각 99.5% 이상의 순도와 325mesh(45 $\mu$ m) 이하의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융점차이가 큰 이 물질들의 균질한 합성을 위해서는 기계적 합금법(Mechanical Alloying, MA)<sup>10)</sup>을 적용하였다[8]. MA공정에서는 고에너지 볼밀(High Energy

---

9) 한마음요전, 원리편, 제5장, 공의 나뿔, p.355

10) 기계적합금법은 Mechanical Alloying(MA)이라고하며 High Energy Ball

Ball mill)을 이용하여 400RPM에서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석영관에 넣고  $5 \times 10^{-3}$  torr<sup>11)</sup>의 진공도로 배기한 후에 아르곤(Ar)가스를 넣어 밀봉한 후에 1000°C에서 3, 6시간 동안 각각 소결(燒結) 열처리하였다. 소결 열처리한 시료는 X선 회절시험(XRD)을 하여 생성된 상을 분석하고 그 비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FESEM-EDX)을 이용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과 입자 크기 및 미소 영역에서의 성분변화를 관찰하였다. 기본 물성을 확인한 시료들에 대해서는 자기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는 MPMS(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초전도 임계온도를 평가하였다.

## 〈실험 결과〉

목표조성인 Pb<sub>3</sub>Mo<sub>6</sub>S<sub>8</sub>로 합성한 분말시료를 1000°C에서 3시간 소결 열처리한 경우에는 Pb<sub>0.92</sub>Mo<sub>6</sub>S<sub>7.5</sub>상이 62.7%, Pb상이 20.4%, 그리고 Mo과 Mo화합물상이 16.9%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Mill공정에 의해서 혼합된 분말이 냉간용접, 파쇄, 재용접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균질한 합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다.

11) torr는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1torr는 0.0013기압에 해당 된다.



1000°C에서 6시간 소결 열처리한 경우에는  $Pb_{0.92}Mo_6S_{7.5}$ 상이 53.6%, Pb상이 11.4%, 그리고 Mo과 Mo화합물상이 35%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XRD결과를 통해 볼 때, MA법으로 합성을 하고 소결 열처리 과정을 3시간, 6시간 동안 각각 거쳤지만 목표조성인  $Pb_3Mo_6S_8$ 의 단일상은 생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000°C에서 3시간, 6시간 열처리한 두 종류의 시료에 대해서 10 외르스테드(Oe)<sup>12)</sup>의 자기장을 인가하고 MPMS방식으로 초전도 임계온도(Tc)를 측정한 결과는 3시간 처리한 경우에서 12K, 6시간 처리한 경우에서 15K를 각각 나타내었다. Chevrel(세브렐)<sup>13)</sup>구조를 갖는  $PbMoS$ 계의 화합물[9]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최고의 Tc는 Chevrel이 1971년에 발표한 15K였다. 그 후 Tc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미세 분말을 이용한 합성[10], 공침법을 통한 합성, 고순도 원료를 사용한 합성 등의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15K를 넘는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Pb와 S분말에 대하여 99.5%의 공업용 순도의 원료를 사용하였고, 분말 사이즈도 45 $\mu m$  정도의 범용 사이즈를 사용하였으며, 목표하였던  $Pb_3Mo_6S_8$ 의 단일상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지만, 선행연구자들이

---

12) Oe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이며, 덴마크의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외르스테드라고 부른다.

13) Chevrel(세브렐)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1971년, 납-몰리브덴-황이 1:6:8의 비율( $PbMo_6S_8$ )로 결합할 때 초전도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고, 이 물질의 구조를 “Chevrel structure”로 규정하였다. 임계온도는 낮으나 자기적 특성이 아주 우수하므로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보고하였던  $\text{PbMo}_6\text{S}_8$  화합물계 중 높은 쪽의 Tc와 대등한 결과를 얻었다[11].

향후, 실험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순도를 좀 더 올리고, 합성조건을 더욱 최적화하여 목표한  $\text{Pb}_3\text{Mo}_6\text{S}_8$  단일상을 얻을 수 있다면 결과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text{XaYbZc}$  3원 화합물에서 Y에 해당하는 원소를 좀 더 깊게 고찰하여 최적의 다른 원소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Chevrel 화합물이 갖는 특성을 뛰어 넘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 결 론 〉

한마음과학적인 연구방법인 근본 ↔ 마음내기 ↔ 마음나뚫음(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지한 나뚫음을 과학적인 용어와 원리로 재해석하여 현실 과학적 연구로까지 이어가는 체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과학이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용 가능한 고온초전도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원형적 순환원리를 적용하여 한마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뚠(현상화)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인지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수행을 통해 과학적 용어로의 재해석과 현실 과학적인 실험과 측정단계로까지 진행시켜 볼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목표조성을  $Pb_3Mo_6S_8$ 로 하기 위하여 고체반응법으로 합성하고  $1000^{\circ}C$ 에서 열처리를 하여 XRD로 정량적 상분석을 했을 때,  $Pb_3Mo_6S_8$ 의 단일상은 생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000^{\circ}C$ 에서 6시간 열처리한 경우는 3시간 열처리한 경우에 비해서  $Pb_{0.92}Mo_6S_{7.5}$ 상이 약간 감소했고, 저온상인 납(Pb)이 20.4%에서 11.4%로 감소했으며, 고온상인 이황화 몰리브덴( $MoS_2$ )과 삼황화 몰리브덴 ( $Mo_2S_3$ )등은 16.9%에서 3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10 Oe의 자기장을 인가하여 자기적성질 측정장치(MPMS)로 초전도 임계온도( $T_c$ )를 측정한 결과는  $1000^{\circ}C$ 에서 6시간 열처리한 경우에서 15K, 3시간 열처리한 경우에서 12K를 나타내었다. 완전한 3원계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열처리한 경우의 결과는 Chevrel상(相) 물질에서 보고된 임계온도의 최고치인 15K와 대등한 값을 나타내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한마음과학적 연구기법을 과학적 난제의 해결이나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 참고문헌

1. H.K.Onnes, The superconductivity of Mercury. Comm. Phys. lab. Univ., Leiden, pp.122-124 (1911)
2. N.D.Gammon, R.P Diaz et al, Evidence of near ambient superconductivity in a N-doped Lutetium Hydride, Nature 615, pp.244-250 (2023)
3. Sukbae Lee et al, J. of the Korean Crystal growth and Crystal Technology, Vol 33, No.2, pp.61-70 (2023)
4. 김용환, 박종래 등,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 국제학술대회, Vol 1. pp.272-287 (2004)
5. 한마음과학원 공학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문, 1998. 5
6. 한마음과학원 공학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문, 1998. 2
7. 강황진 대행선사 친견 비망록, (1997)

8. C.C.Koch, "Material Synthesis by Mechanical Alloying" Rev. Mater. Sci. 19: pp.121-143 (1989)
9. Chevrel R et al, Sur de Nouveles Phases Sulfurees Tenaires du Molybdene. J of Solid State Chemistry 3: pp.515-519 (1971)
10. S.E. Boudjada et al, Materials research Bulletin, Vol 33, No.2, pp.237-252 (1998)
11. D.P. Hampshire, Handbook of Superconductivity, B3 Chevrel Phases, pp.2-25 (2021)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Registered  
in One of the Korean Seon Centers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장) · 김미지(한마음한의원장) · 김종훈(김종훈치과원장)

김주현(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장미란(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연구원)

Jun Yeop Lee (Director, Yaksanae Oriental Hospital)

Mi Ji Kim (Director, Hanmaum Oriental Medicine Clinic)

Jong Hoon Kim (Director, Kim Jonghoon Dental Clinic)

Joo Hyun Kim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 Ran Jang (Researcher,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질환은 느리고 잠정적인 과정을 거쳐 정상에서 벗어난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인 변화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1]. 만성질환의 특성상 종교적 의지치를 찾는 경우도 많다. 불교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관법(觀法)이라는 것이 있다[2]. 대행선사의 주인공(主人空) 관법[2]은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내면으로 생각을 돌이켜 자가 치유의 길을 강조하고 있기에 Orem[3]이 주창한 자가간호를 이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 안양 소재 한마음선원에 다니면서 당뇨, 고혈압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사전연구이다.



---

## 4.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모두 22명이었으며, 2명은 남자(9.1%), 20명은 여자(90.9%)였다. 연령은 최소 57세에서 최대 8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69.23세(SD: 7.48)이었다. 참여자 모두 당뇨 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 5.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6월 26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였다. 주요 질문은 1) “질병관리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말해주세요”, 2) “질병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말해주세요”, 3) “질병관리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등 이었다.

## 6. 연구결과

표 1. 연구의 주제와 하위주제

주 제	하위주제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 질병 진단에 대한 충격
	· 질병 진단에 대한 자연스런 수용
질병의 원인에 관한 숙고	· 과로와 스트레스
	· 불규칙한 생활습관
	· 가족력과 노화

주 제	하위주제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의료진의 처방 준수 · 운동과 식이요법의 실천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봉사 활동 · 마음 다스리기
질병 회복의 걸림돌	· 제한적인 자기 통제력 · 부실한 질병관리 교육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 정보와 체험 공유 ·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교육

## 주제 1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 하위주제 1. 질병 진단에 대한 충격

일부 참여자들은 질병을 진단받을 때 커다란 충격과 함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였다.

### 하위주제 2. 질병 진단에 대한 자연스런 수용

한편,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이미 주변에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주제 2 질병의 원인에 관한 속고

### 하위주제 1. 과로와 스트레스

일부 참여자는 가족의 병구완, 가족 부양, 출산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하위주제 2. 불규칙한 생활습관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병의 원인으로 여기었다.

### 하위주제 3. 가족력과 노화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이미 가족 중의 대부분이 자신이 걸린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을 원인으로 여기거나, 늙으면 으레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된다고 여기었다.

## 주제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하위주제 1. 의료진의 처방 준수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정해진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니며 의료진의 처방을 성실하게 따름으로써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 하위주제 2. 운동과 식이요법의 실천

참여자들은 의료진의 약 처방뿐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 등에 대한 조언을 따르면서 질병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위주제 3. 봉사 활동

일부 참여자들은 종교인으로서의 봉사정신으로 질병 극복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

---

#### 하위주제 4. 마음 다스리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분노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마음 다스리기를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주제 4 질병 회복의 걸림돌

##### 하위주제 1. 제한적인 자기 통제력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으로 인한 식이조절의 어려움 등 자기 조절 부족 등으로 질병관리가 힘들었다고 표현하였다.

##### 하위주제 2. 부실한 질병관리 교육

일부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질병관리 교육은 교육자 중심이어서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질병관리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 5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하위주제 1.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참여자들은 질병 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원하였다.

##### 하위주제 2. 정보와 체험 공유

참여자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정보와 체험을 공유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할 수

---

---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 하위주제 3.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교육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 공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 7. 결론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전문가의 지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종교적,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보다 심층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형태와 내용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개발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Kim JH, Park EY, Lee HN, Kim HJ, Yoo JB, Choi GH. The lived experience of a main caregiver in the family with chronic disease pati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y

---

Research. (2), 34-44 (2017)

2. Daehaeng. No River to Cross: Trusting the Enlightenment That's Always Right Here. Wisdom Publications, Somerville p.53-55. (2012)

3. Orem DE, Taylor SG, Renpenning KM. Nursing: Concepts of practice. 6th ed. Mosby, St. Louis MO 1-542 (2001)

• 주제어: 질적연구, 포커스 그룹, 치유, 프로그램, 주인공 관법

---

---

• ABSTRACT •

---

## 1. Need for Research

Chronic illness refers to a condition resulting from permanent and irreversible pathological changes that deviate from the normal state through a slow and gradual process. Given the nature of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continuous self-management, many individuals seek religious support. Within Buddhism, there exists a practice known as introspection. Juingong Gwanbeop, defined by Seon Master Daehaeng, emphasizes self care by introspecting on one's inner thoughts, as the cause of all events that happens to me is myself.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was employed.

---

---

## 2. Research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isease management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chronic disease at Hanmaum Seon Center. Ultimately, this information will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ailored programs.

## 3. Research Desig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preliminary investigation aimed at crafting a disease management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diabetes and hypertension who attend Hanmaum Seon Centers in Anyang, Gyeonggi-do.

## 4. Research Participants

The study included 22 participants, of whom 2 were male (9.1%) and 20 were female (90.9%). Ages ranged from 57 to 81 years, with an average age of 69.23 (SD: 7.48). All participants had chronic conditions such as diabetes or hypertension, with disease durations spanning from 1 to 36 years, averaging 10.31 years (SD: 9.10). All except one were on medication. Eighteen

---

---

individuals (81.8%) engaged in healing meditation, with 9 individuals (40.9%) practicing it daily. Additionally, 6 participants (27.3%) reported personal interactions with monks for disease healing.

## 5.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 occurred from June 26, 2022, to August 20, 2022. Core questions included: 1) “Describe challenges faced in managing your condition,” 2) “Discuss efforts made toward recovering from your illness,” and 3) “Outline desired programs for disease management.”

## 6. Research Findings

Table 1. Themes and sub-themes of this study

Themes	Sub-themes
Opposing responses to disease diagnosis	· Impact of diagnosing the disease
	· Natural acceptance of disease diagnosis
Reflections on the causes of disease	· Overwork and stress
	· Irregular lifestyle
	· Family history and aging



---

Themes	Sub-themes
Efforts toward disease recovery	· Compliance with medical staff's prescription
	· Practice of exercise and diet
	· Volunteer work
	· Control the mind
Obstacles to disease recovery	· Limited self-control
	· Insufficient education on disease management
The need for a customized disease management program	· In-depth and professional training
	·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 Education to become the master of one's own body and mind

---

Five major themes and 14 sub-themes were identified.

### Theme 1 Opposing responses to disease diagnosis

Participants provided varying accounts of their initial reactions when they were first diagnosed with their illnesses. While some participants described feelings of shock, surprise, and astonishment, others naturally accepted the diagnosis as something that was bound to happen.

Sub-theme : Impact of diagnosing the disease, Natural

---

---

acceptance of disease diagnosis

## **Theme 2 Reflection on the causes of disease**

Participants engaged in introspection about their illnesses, reflecting on various factors that might have contributed. Among these, they explored the reasons behind the onset of their conditions. Some attributed their illnesses to physical factors such as overexertion and stress, while others considered irregular lifestyles. On the other hand, some participants attributed their illnesses to factors like family history and aging.

Sub-theme : Overwork and Stress, Irregular lifestyle, Family history and aging

## **Theme 3 Efforts to recover from illness**

Participants revealed a range of efforts aimed at recovering from their illnesses. These efforts included regular visits to hospitals for treatment, practicing diverse exercises and dietary habits, maintaining mental vitality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and managing their emotional states.

Sub-theme : Adherence to prescriptions of medical staff, Practice of exercise and diet, Volunteering, Taking care of the

---

---

mind

#### **Theme 4 Obstacles to disease recovery**

Although all participants made diverse efforts to manage their illnesses, many faced challenges in doing so. Two main subtopics emerged: “Limited Self-Control” and “Inadequate Disease Management Education.” Despite attempts to follow prescribed treatments and engage in educational programs, many participants found it difficult to adhere to these practices in real-life situations, leading to situations where they felt out of control. Some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disease management programs offered by hospitals struggled to apply the teachings in real-world scenarios, and as a result, experienced worsening conditions.

Sub-theme : Limited self-control, Inadequate disease management education

#### **Theme 5 Necessity of Customized Disease Management Program**

Participants expressed a desire for opportunities to join new disease management programs tailored to their needs. They

---

---

hoped for programs that would offer more in-depth and expert guidance, allowing for information and experience sharing, as well as communication. Additionally, they sought education that would not only contribute to physical well-being but also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practices such as introspection.

Sub-theme : In-depth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Education to become the owner of my body and mind

## 7. Conclusion

Individuals grappling with chronic diseases necessitate both medical insights and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disease management program is crucial, catering to a more profound engagement in both realms. It's apparent that individuals with chronic conditions require guidance not only from medical experts but also from spiritual and religious aspects. Consequently, participants expressed a preference for a community-based disease recovery program rather than individual efforts. Through such a program, they aspired to access enhanced professional guidance, information sharing, experiential insights, and deepened introspective pract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

---

suggestions are put forth:

Develop a disease management program in alignment with participant preferences.

Conduct future research to validate the efficacy of these proposed programs.

-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healing, program, Juingong meditation
-

## 의학팀 연구 일정

- 21.07.05. 연구심사 신청서 제출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21.09.03. 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 획득
- 21.10. 의학팀 질적연구 학습 시작
- 22.03.30. 질적연구 관련 만성질환자 모집 공고
- 22.06.26.~22.08.20. 과학원 3층 회의실에서 대상자 면담

## 의학팀 연구 일정

- 22년 10월~23년 1월. 면담 자료 분석, 정리
- 23년 2월. 논문 작성
- 23.03.22. 논문 투고 (대한질적연구학회)
- 23.05.05. 논문 심사 완료 및 승인
- 23년 6월~현재. 후속 연구 준비

## 22.03.27. 의학팀 간담회

의학팀 연구 보고 및  
향후 연구 일정 논의



22.06.26.~22.08.20  
대상자 면담  
(과학원 3층)

23.07.02.  
논문 올림

의학팀 논문 최종 출판  
연구 결과 원만 회향



## 질적 연구 과정

개념 설정

연구 목적  
방향 설정  
질적연구 학습



연구 설계

대상자  
면담 장소, 날짜  
질환 선정



분석

통계 분석  
면담 자료 분석



##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준엽<sup>1</sup> · 김미지<sup>2</sup> · 김종훈<sup>3</sup> · 김주현<sup>4</sup> · 장미란<sup>5</sup>

약산에한방병원장<sup>1</sup>, 한마음한의원장<sup>2</sup>, 김종훈치과원장<sup>3</sup>,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sup>4</sup>,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연구원<sup>5</sup>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Registered in One of the Korean Seon Centers**

### 연구의 필요성

-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28.3%  
당뇨병 유병률 11.6%
- 당뇨의 경우 치료자의 25.8%만 혈당 조절
- 고혈압은 73.5%만 혈압 조절
-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오래 앓는 병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치료가 장기화되는 질병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자가간호 필수

## 연구의 필요성

-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종교적 의지처를 찾음
-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내면으로 생각을 돌이켜 자가 치유의 길 강조
- 만성질환자의 심층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

## 연구 목적

-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심층 이해
-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연구 참여자

- 한마음선원 본원 신도 중, 당뇨, 고혈압 환자 22명
- 남자 2명, 여자 20명
- 연령 범위 57~81세 (평균 69.23세)
- 유병기간 1~36년 (평균 10.31년)
- 18명은 치유를 위한 관법을 시행 (소요시간: 평균 5분)
- 매일 수행: 9명
- 질병치유 목적으로 스님과 개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 6명

## 희망하는 만성질환 관리 모임 형태

- 한달 2.6회, 총 6.2회 모임
- 1회 85분
- 희망 인원 14.61명

## 자료수집

- 기간: 22.06.26.~22.08.20.
- 포커스그룹 면담 : 그룹 상호작용으로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 주제에 대한 개방된 토론을 통해 주제를 탐색.
- 면담 시간: 40~60분
- 장소: 과학원 3층

## 주요질문

“질병관리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말해주세요”

“질병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말해주세요”

“질병관리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 연구결과 – 5개의 주제

1.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2. 질병의 원인에 관한 숙고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4. 질병 회복의 걸림돌
5.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 1.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질병 진단에 대한 충격

"정말 저는 그 진단받았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너무 슬프고...

제가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이래야 되냐고 선생님 붙들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 1.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질병 진단에 대한 자연스런 수용

"뭐 크게 충격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아! 그런 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조심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참여자 2)"

## 2. 질병의 원인에 관한 속고

과로와 스트레스

"식구가 하도 많으니까는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

시동생들이 팔남매이고, 저희집이 둘째인데

어떻게 하다가 둘째가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당뇨가 된 것 같아요."

## 2. 질병의 원인에 관한 속고

### 불규칙한 생활습관

"결혼해서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먹을 거 막 먹고 아무 때나 했는데.(중략) 당뇨는 높은 편이에요.(참여자5)"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았어요. 설사가 안 멎고 듣지를 앓는 거예요. 이 설사하는 거는 고쳤는데... 그 당뇨가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참여자 2)"

## 2. 질병의 원인에 관한 속고

### 가족력과 노화

"저는 가족력이 확실하게 있어요. 외가 쪽이 전부 다 거의 백 프로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오려니 하고 이제 그 항상 이제 주의는 하고 있었죠.(중략)  
고혈압이요. 혈관계가 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참여자 6)"

###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의료진의 처방 준수

"내가 기록이 싹 다 있으니까 더 높여 안 잡춰도 되요.  
그냥 내가 주는 대로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중략)  
그래서 멀어도 그냥 그리 또 가는 거예요.(참여자 1)"

###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운동과 식이요법의 실천

"저녁에 매일 걷기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배드민턴  
치고.(중략) 제가 또 대체의학 쪽으로 인연이 돼 가지고 거기  
가면 음식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줘요.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술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다 끊고. 센 거 이런 것도 먹지  
마라 그래 가지고 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먹고 좀 안 먹는게  
좀 많아요.(참여자 1)"



###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봉사 활동

"선원에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시는데 같이 해요. 제가 11년을 동 대표를 했어요. 그때는 걸음을 못 걸었는데도 나이가 그때는 젊으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게 다 공짜 아니더라고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거를 내가 요즘에는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참여자 5)."

### 3. 질병 회복을 위한 노력

#### 마음 다스리기

"근데 이게 혈압이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좌선을 하고 이게 명상을 하면서 이게 한 10분 20분 지나면 혈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참여자 4)"

"선원에 나오면서 달라진 거 많아요.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누구 핑계 대는 걸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핑계 대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내 탓이지 하고 사는 거죠.(참여자 1)"

#### 4. 질병 회복의 걸림돌

제한적인 자기 통제력

"이런 게 알려지는 것도 싫고 지역의 한두 사람만 알고 있는데 이런 질병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안 알리고 싶었는데 공복 혈당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참여자 3)"

#### 4. 질병 회복의 걸림돌

부실한 질병관리 교육

"그야 뭐 운동을 하고, 이제 그 OO병원에 사람들이 이야기들 운동도 하시고 그러라고.(중략)병원에서 당뇨식에 대한... 그대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맞질 안 해요.(참여자 2)"

"병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다 참여를 해서 당뇨 교육 그런 교육도 다 받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 5.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저는 전문가분도 좀 오셔서 가끔씩 이런 질병이 건강 지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안내도 좀 해주고 같이 이렇게 식이요법도 괜찮고 운동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 5.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보와 체험 공유

"정보를 많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그 정보를 듣기보다는 병을 공유 있는 그런 도반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더 이제 결속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긴장도 하고 또 더 귀에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참여자 4)"

## 5.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교육

"건강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으뜸으로 마음공부가 기둥이 서 있어야만  
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참여자 2)"

## 결론

만성질환자 신도들이 원하는 질병관리 프로그램 확인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 결론

연구분석 결과 5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 도출

참여자들은 공동체로서의 질병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

전문적인 도움과 체험 공유, 마음공부의 심화 등을 원함

## 제언

첫째, 본 연구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형태와 내용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개발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마음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행선사 법문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Hanmaum  
Pedagogy: Based on the Analysis of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alks

김민선 · 김영래 · 방정애 · 안정현 · 최명희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

Min Sun Kim · Young Rae Kim · Chung Ai Bang ·  
Jung Jyun An · Myeong Hui Choe  
(Educational Research Team, Hanmaum Science Institute)

교육학 연구팀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인류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이론적 연구를 추진해 왔다. 오늘날 교육은 물질문명에만 치우친 결과로 성장 세대들은 내면적 정신세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물질세계만 추구하다가 길을 잃고 불행에 빠지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계를 계발하여 물질계와 조화를 이루며 자유인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신 대행선사의 한마음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육이론을 개발하여 세상에 보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연구팀은 2022년 한마음과학원 기획과제로 ‘한마음교육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대행선사의 법문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마음교육학’으로 수렴될 수 있는 핵심어와 핵심내용을 도출해 왔다.

과제 수행 1단계에서는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 1권을 분석하여 핵심어를 도출하고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여섯 가지 카테고리(교육개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사론)로 범주화하고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범주별 핵심어를 기반으로 기초적 서술을 하였고, 향후 교육학적 체계에 따라 범주검색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이해가 쉽고 좀더 내용이 풍부한 텍스트를 개발할 것이다. 이어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마음 교육학 이론서를 집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누구나 자기마음을 계발하여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고 모든 생명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마음 교육학을 정립함으로써 이를 학교 및 일반 교육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주제어: 한마음교육학, 한마음, 교육, 정신계, 대행선사



Over the past few years, the Educational Research team has been conducting theoretical studies to present a new educational paradigm that can help harmonize human spiritual culture and material civilization based on the teachings of Seon Master Daehaeng. Today's education is the result of excessive dependence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accordingly, growing generations often get lost and fall into misery while pursuing only the material world without having a chance to develop their inner spiritual world.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o develop and disseminate an educational theory that can convey the teachings of Seon Master Daehaeng, who taught about 'Hanmaum(One Mind)' and how to live in harmony with the material world as a free human being. In response, the research team began to carry out a research project at Hanmaum Science Institute in 2022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Hanmaum Pedagogy,' and for that foundation, the team analyzed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alks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and derived key words and key contents.

As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Dharma Talks for Dharma Brothers(Vol. I)』 of the Ever flowing path series was analyzed to derive key words and organize the core content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educational concept,

---

---

educational purpose,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method, educational evaluation, and the theory about teacher. In the second step, the research team has provided basic explanations focusing on the key words for each category, and it plans to continue searching Dharma talk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edagogical framework to develop an easy-to-understand and enriched text. Finally, the third step is to write a theory of Hanmaum Pedagog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ultimately to establish Hanmaum Pedagogy that leads everyone to develop their own minds, improve their own lives, and coexist with all living beings, so that it can be spread to schools and general education.

- Keywords: Hanmaum Pedagogy, Hanmaum, Education, Spiritual world,  
Seon Master Daehaeng
-

# 핵심어-중심 접근에 의한 대행선사 용어집 개발

## Development of Glossary on Seon Master Daehaeng's Dharma Teachings

김대성 · 김미지 · 김상윤 · 김주현 · 김학도 · 박종숙 · 박지영  
안인옥 · 이문성 · 진복선 · 최상욱 · 최한겸 ·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법문연구팀)

Dae-Sung Kim · Mi-Ji Kim · Sang-Yoon Kim · Ju-Hyun Kim  
Hak-Do Kim · Jong-Sook Park · Ji-Young Park · In-Ok Ahn  
Mun-Seong Lee · Bok-Sun Jin · Sang-Wook Choi  
Han-Kyeum Choi · Soo-Kyung Hwang  
(Hanmaum Science Institute, Dharma Talk Research Team)

대행선사께서는 1972년 안양에서 한마음선원을 개원하시고 2012년 열반하시기까지 수많은 법문을 설하셨다. 대행선사께서 설하신 법문은 다양한 형태의 서적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중에 “허공을 걷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만 16권에 이른다. 이와 같이 대행선사의 출간물은 그 양이 방대할 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학, 천문학, 의학, 공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그런데 대행선사께서는 시대에 맞는 방편과 용어를 사용하여 법문을 설하셨기에, 기존 사전이나 용어집에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로운 용어집 개발연구로 이어졌으나, 용어해설에 대한 의견이 연구자들 간에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용어집을 개발하고자 “큰스님 법문은 큰스님 법문으로 이해한다”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채택한 연구 기법은 핵심어중심 검출법으로서, 핵심어가 포함된 법문에서 핵심어를 설명하는 문장만을 선택적으로 자르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통하여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핵심어를 설명하는 문장만을 검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법문의 정수가 그대로 살아 있는 용어집 개발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핵심어선발 → 법문검색 → 법문검출 → 법문편집의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원문으로는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법형제법회·국내지원법회·국외지원법회·일반법회]” 16권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빈도수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핵심어를 선발하였으며, 순차적으로 불교용어,

---

생활용어로 범위를 넓혀 현재 1200개의 핵심어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대행선사께서는 평소에 생활불교를 강조하셨기에 법문 중에는 생활과 관련된 용어의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단계에서는 한마음과학원 검색창을 이용하여 핵심어당 125여 개의 법문단락을 임의 다운로드하여 파일 1개를 생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 핵심어가 포함된 법문단락을 읽고 핵심어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하여 자르고 이어붙이는 검출작업을 수행하였다. 4단계에서는 정의-원리-활용의 관점으로 대분류한 후에 이어서 내용의 전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문을 배열하였다. 편집된 법문중에서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적은 법문은 제외시킴으로써 핵심어당 평균 20여개의 법문을 확보하였다.

용어집을 만드는 목적이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사께서 전하고자 하신 법을 이어받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본 용어집은 사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어집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독자께서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용어집을 활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주제어: 대행선사, 용어집, 허공을 걷는 길, 핵심어중심, 법문검출

---

From 1972 until her nirvana in 2012, Seon Master Daehaeng delivered numerous dharma talks. These teachings were published in various formats, with the series titled “Taking the Path of Emptiness” alone spanning 16 volumes. The publications of Seon Master Daehaeng are not only voluminous but also encompass diverse academic fields like education, astronomy, medicine,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humanities, and psychology. However, Seon Master Daehaeng used contemporary methods and terminology to deliver her teachings. This often made it difficult to find concrete explanations for certain terms from conventional dictionaries or glossaries. Efforts to create a new glossary have often been hindered by disagreements among researchers over term explan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adopted the strategy of “understanding the Master’s talks through her own talks.” We utilized a keyword-based extraction method, selectively cutting and joining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that elucidate the keyword, ensuring the essence of the original content remains. This approach is deemed suitable for crafting a glossary that encapsulates the core of the teachings.

Our research followed a four-step process: keyword selection, Dharma talk search, Dharma talk extraction, and Dharma talk editing. The primary source was the 16-volume “Taking the

---

---

Path of Emptiness [Regular Dharma Meetings, Special Dharma Meetings, Domestic Branches Dharma Meetings, Overseas Branches Dharma Meetings, General Dharma Meetings].” In the first step, based on frequency and importance, keywords were chosen, eventually compiling a list of 1,200 keywords. As Seon Master Daehaeng often emphasized daily-life Buddhism, a significant frequency of life-related terms appeared in the teachings. In the second step, using the Hanmaum Science Institute’s search engine, an average of 125 paragraphs per keyword were randomly downloaded. In the third step, paragraphs containing the keyword were reviewed, and relevant sentences were selectively cut and joined. In the fourth step, the extracted teachings were categorized by definition, mechanism, and application and then organized sequentially. Repetitive or less critical teachings were omitted, averaging around 20 teachings per keyword.

The intent behind this glossary is not merely to provide dictionary definitions but to perpetuate the teachings Seon Master Daehaeng aimed to impart. Consequently, while this glossary can function as a dictionary, it can also be viewed as an abridged version of the Dharma book. If readers approach this glossary with such an understanding, they may glean insights beyond their expectations.

- Keywords: Seon Master Daehaeng, glossary, Taking the Path of Emptiness, keyword-based approach, dharma talk extraction.

## 한마음과학원 소개

한마음과학원은 1996년 대행 선사가 설립한 한마음선원 부설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이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본래 주어진 근본 마음을 탐구하고, ‘일체의 근본이 한마음이며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한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문 영역과 학문 분야에서 실증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육, 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 프로젝트, 정기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인류 발전과 생명 진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원에서는 사람들이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발현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며 통찰과 직관, 그리고 지혜와 소통을 추구한다. 한마음과학은 고정된 관념과 기존의 과학적 틀을 넘어서 중용의 길을 추구하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본에서 비롯되고 연결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공생의 원리에 토대를 둔다.



## About Hanmaum Science Institute(HanSI)

The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SI) is a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Hanmaum Seon Center founded by Seon Master Daehaeng in 1996. Engaged in HanSI research and activities, we explore, demonstrate, and apply the fundamental mind inherent within everyone in practice. We conduct research in various practical and academic field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realms are not separate and that they arise from our fundamental essence, *Hanmaum* (one mind).

Professionals from various disciplines,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education, and medicine, participate in team projects and regular seminars, working towards humanity's spiritual development and the evolution of all lives. Also, HanSI provides education programs to inspire people to realize and reveal their own inherent, infinite potential.

Hanmaum Science is the study that integrates and develops both the spiritual and material realm. Hanmaum Science pursues insight and intuition as well as wisdom and communication. Through Hanmaum Science, we seek an open inquiry that challenges any fixed ideas or limitations in today's science. We aim to conduct research that balances out science and religion, old and new,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and merge other dichotomies that lead to further explorations.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ll beings have the same foundation, and through it, all are connected as one, sharing the same life.

#### ◆미션

본 기관은 연구와 교육, 사회적 실천 활동들을 통해 한마음과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인류의 발전과 생명 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비전

본 기관은 새로운 한마음과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연구 및 교육 기관을 지향한다.

#### ◆실현가치

한마음과학원이 추구하는 실현가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만물만생이 한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하는 원리이다.

#### ◆목표와 실천과제

- ▶ 전문 분야에서 한마음 원리의 탐구와 실증
- ▶ 종교와 학문적 연구의 통섭
- ▶ 한마음과학 연구방법론의 정립
- ▶ 연구 플랫폼 구축과 활용
- ▶ 주인공 관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 Our Mission

We have a clear mission to contribute to humanity and the evolution of life by systematically developing and spreading the benefits of Hanmaum Science through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activities.

### ◆ Our Vision

We aim to be a global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 presenting a new paradigm through Hanmaum Science.

### ◆ Our Core Values

HanSI's core values are grounded in the teachings of Seon Master Daehaeng: All beings have the same foundation, and through it, all are connected as one, sharing the same life, the same mind, the same body, working together as one, and freely giving and receiving whatever is needed, while ceaselessly manifesting and changing.

### ◆ Our Goals and Initiatives

- ▶ Explore and Verify Hanmaum Science in Various Fields
- ▶ Converge Academic Research and Religions
- ▶ Establish Research Methodology of Hanmaum Science
- ▶ Create and Utilize Research Platforms
- ▶ Develop and Run Educational Programs Focused on Entrusting  
Everything to the Foundation of Hanmaum
- ▶ Build Leaders of *Hanmaum Education*
- ▶ Develop Educational Content

- ▶ 한마음교육 지도자 양성
- ▶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 복지, 의료, 장학사업 추진
- ▶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 학술대회 및 법회의 개최
- ▶ 간행물 저작, 발간 등 출판사업
- ▶ 국내외 연구자 지원

- ▶ Implement Welfare, Medicine, and Scholarship-Related Projects
- ▶ Build a Global Professional Network
- ▶ Organize Conferences and Dharma Group Meetings
- ▶ Publish Books and Academic Journals
- ▶ Provide Support to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 제8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위원장 : 혜수스님((재)한마음선원 이사장)

### ■ 학술·홍보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 혜찬스님(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 위 원 : 이문성, 김주현, 안정현, 이화행, 김영래, 박근영, 이준엽, 이창수, 최명희

### ■ 편집출판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 청동스님(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 위 원 : 최선미, 김미지, 박종숙, 박지영, 장미자, 심영애, 최재석, 장미란, 김상운

### ■ 총무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 혜룡스님(한마음선원)

- 위 원 : 김미림, 김민선, 김인옥, 박성례, 이은주, 최성희

### ■ 사무국

- 이양희, 황수경, 선우경윤, 박영우, 김순득, 박훈, 노효정





## 제8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펴낸이/ (재)한마음선원

펴낸곳/ (재)한마음선원

인쇄&발행 2023년 10월 6일

출판 등록 2000.12.15. 제 2000-16호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전화(031)470-3100 팩스(031)470-3116

<http://www.hanmaum.org>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 2023

